朝鮮日報
夕刊
十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illegible]
發行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少年朝鮮日報(日曜日附錄)
朝光(月一回發行)
女性(同上)
少年(同上)

其後判明된 日本軍戰死者

【天津九日發同盟】中國駐屯軍司令部發表 九日正午까지 判明된 死傷者의 氏名은 左와如하다
戰死少尉 松井元之助
重傷伍長 長谷川[illegible]
同二等兵 [illegible]川政雄
輕傷一等兵 岡原三吉

宣傳機關을總動員하야 抗日運動을後援하라

事件有利解決誘導에極力努力

國民政府善後策內容

蔣介石氏

【南京九日發同盟】廬山에잇는 國民政府 軍政最高首腦部는 蘆溝橋事件 善後處理에對하야 八日부터 九日에亘하야 蔣介石氏를 中心으로 數次에亘한 協議의結果 解決方法을 左와如히 決定하엿다한다 蘇聯의 國內紛爭과 乾岔子島事件의 結果는 蘇聯을 信賴할수업게된것을 認識하엿스며 또中國의 抗日戰備도 겨우整頓의 緖에就하엿슬뿐으로 此際自重하야 事件의 擴大防止에 努力하야 局地解決의 大綱으로써 臨하되 다음 具體的 三方法에依하야 極力有利한 解決에 誘導하게할것이다

一、日本政府 特히 軍部의 眞意를 徹底的으로硏究하야 이에 應할方策을 決定할것
二、新聞 라디오 其他 宣傳機關을 總動員하야 日本軍의 非를中外에 宣傳할것
三、第二十九軍에對하야 全國的 後援을 주어 民族英雄으로 崇拜케하야 現地의態度를 强硬케할것

그리고 右決定은 國內主要地方 軍政機關에 極秘裡에 通過하고 北中以外의 地方에對하야는 될수잇는대로 日本과의 關係惡化를 防止하도록 警告를 發하엿다

對策會議結果

北中防備强化에意見一致

【上海十日發同盟】蔣介石氏는今回 蘆溝橋事件에 關한 對策會議의結果 河北、山東兩省의 中央化를 促進하야 그防備를 一層鞏固케할 必要가잇다는 方針을 決定하고 九日 蔣伯誠氏를 濟南의 韓復榘氏에게 急派하엿다 廬山으로부터의 情報에 依하면 蔣介石氏는 蘆溝橋事件의 對策에 對하야 八日午後부터 汪精衛氏 王寵惠外交部長 程潛參謀總長 胡宗南第一軍長等 以下軍政要人을 招致하야 愼重히 會議를열고 深更까지 協議를 行한바 그席上에서 即時 抗日積極策을 採擇하라는 强硬意見이 支配的으로되고 胡宗南軍長과가튼이는 麾下第一軍全部約五萬을 山東北部 河北省境에 移動시키라고 提言하엿다한다 蔣介石氏는 事件의 眞相과 日本側의 眞意向을 確認하기前에 抗日戰備도 整頓되지못한中國側이 只今事를擧하는것은 不得策이라는 旨를 力說한結果 第一軍의 北方集結等은 行하지안헛스나 此際北中中央化工作에 拍車를 加하야 北中의國防線을 鞏固케하기로 意見이 一致되엿다 그리고 爲先北中에 蔣伯誠氏를韓復榘氏에게 派遣하야 山東의 警備에 當케하는 同時에 山東의 動搖를 防止키爲하야 韓氏의中央關係緊密化工作을 進行케하기로 한模樣이라한다

皇太子殿下 那須御用邸에行啓

【東京電話同盟】皇太子殿下께서는 去三日葉山 御用邸에 御避暑하시엿든바 十日朝 同御用邸御發 爽凉한 那須御用邸에 行啓하시엿다 當日皇太子殿下께서는 天皇皇后兩陛下께 御惜別의 人事를하신後 午前七時三十分 石川傅育官 伊知地 齋藤兩御養育掛 三樹御用掛를 거나리시고 葉山御用邸를 御出門 同七時四十五分 逗子驛으로부터 特別列車에 御乘車하사 山手路로 赤羽를 經由하사 午後零時十五分 黑磯驛御着 御機嫌麗하시게 那須御用邸에 드시엇다 그리고 那須에 當分 御滯在하실 御豫定이시라고 承聞된다

王部長歸來 今明中交涉開始

【南京九日發同盟】外交部長王寵惠氏는 九日午前十時 廬山을떠나 九江으로부터 飛行機로 午後三時南京에 到着하야 即時外交部長官邸에 드러가 次長陳介氏를爲始하야 外交部 首腦部를招致하고 蘆溝橋事件에關한 情勢를 詳細히 聽取한後 廬山의蔣介石氏를 비롯하야 國民政府首腦部의 事件에對한意向을傳達하고 善後處置에 對하야여러가지協議를 行하엿다 王部長은 九日夜或은 十日朝 日本側 日高參事官과 會見하야 事件에 對한 日本政府의 態度를 傳하고 嚴重한 交涉을 開始할豫定이라한다

今後中國側態度에 重大關心

駐屯軍司令部發表

【天津九日發同盟】中國駐屯軍司令部九日午後二時三十分發表 一、蘆溝橋의 中國部隊는 我要求를 容認하고 午後零時三十分마침내撤退하야 永定河右岸으로 移駐하엿슴으로 我軍은 蘆溝橋北側及 東側에 兵力을 集結하야 戰鬪行動을 中止하고 事件의 善後處理에 關한 交涉을 開始하기로하엿다

一、二十九軍首腦部가 이미 和平的解決 事件不擴大를 希望함에 不拘하고 蘆溝橋의中國部隊가 撤退를 遲延한것은 再昨夜來龍王廟附近의中國部隊의 不法射擊과 아울러 其原因은 明白히 近時 [illegible]化하는 南京政府側及共產黨系 中國軍 特히 其中堅將校以下에對한 抗日宣傳結果라고 斷定하지안흘수업다 如斯한것은 中國軍上下의 意思를 疎隔하고 나아가서 冀察側의 立場을 不利케하는것으로 萬若이것으로 所謂人民戰線派의 欲望達成을 助長함과 如한 結果를 招來하는것은 東亞時局을爲하야 實로 遺憾으로역이는바이다 따라서 軍은今後中國側의動向에 重大關心을 갖고잇다

戒嚴令下의 北平第二日

【北平九日發同盟】戒嚴令下第二日의 北平은 警備를 嚴重히하야 物價高騰을 警戒하야 重要食料品인 小麥은 十割 麥粉은 二十割로부터 三十割까지 奔騰하야 夜에入하매 各鐵道는 午後六時發의 奉天行의 北寧鐵路인 國際列車를 最後로 全然中止되고 市內電車도 全部不通되여 交通杜絶되여 外城에는 通行者가 一人도업다 劇場 映畫館이 休館함은 勿論 繁華한前門의 街燈까지 消燈되여 暗黑街化의 都市의大路는 沛然한 降雨까지 兼하야 沈默에 싸여잇다

冀東撲滅目的의 冀東除僞團組織

北中攪亂工作要人暗殺團體

軍隊中에서猛活動

【漢口九日發同盟】今次蘆溝橋事件이中國側의 抗日意識에 根底를둔것은 各方面이 一齊히 認定하는바로 同事件을 契機로 秘密結社『冀東除僞團』이란 攪亂工作要人暗殺團體가 北中軍隊中에 猛烈히活動하고 잇는것이 發覺되엿나 卽 護校工作團副團長周[illegible]氏는 四月下旬來 冀東殲滅을 目標로한『冀東除僞團』의 結成을 企圖하고 救國人民將年團 護校工作團 反帝大同盟等을 構成員으로하야 臨東人民自治會及 漢口의 各種抗日團體共產黨과 連繫하야 結成準備를 進行한 結果 六月二十日 漢口에서 抗日分子多數參加下에 大同團結하야 同月二十四日 行政院軍事委員會全國各新聞社其他에 宣言書를 發送하고 七月一日에 이르러 正式으로 成立된 以來 積極的으로 政府要人暗殺 抗日活動、冀東攪亂、對日經濟封鎖等 抗日活動을 開始하고잇는것이다

八氏合同送別會

今般 大移動에依하야 榮轉或은 退官한 湯村前京畿道知事、相川前總督府外事課長、新貝前總督府人事課長、富永前總督府[illegible]課長、西崎前總督府理財課長、矢島前總督府農林局長、溝前鐵道局理事의 送別會를 京城府尹과 商議會頭의 主催로 十日午後零時半부터 太平通 府民館에서 開催하엿는데 官民多數가 參席하야 盛大히마첫다

今回事件은全然 中央의煽動結果

日高參事官이陳次長訪問코 抗日行動取締要求

【南京九日發同盟】日高參事官은 九日午後四時半 外交部에 陳介次長을 訪問하고 蘆溝橋事件에 關하야 同事件은 全然中央의 北中에 對한 抗日煽動에 起因한것이라는것을 前提로하고 衝突部隊인 馮治安의 第三十七師는 中國軍中에서도 特히 抗日意識이 旺盛한 部隊인것과 旣往의 北中抗日工作의 諸事實은 勿論 中央地方을 通하야 近來 頻發하는 侮日行動에 對하야 一一히 列擧하야 嚴重히 警告하고 此種 抗日事件을 即時 取締하여달라고 嚴重히 要求하엿다 이에 對하야 陳介次長은 今回의 衝突은 全然 日本側의 第二十九軍에對한 不法攻擊에依한것으로 그責任은 日本側에잇다는것을 反復하야 主張하고 中國軍民의 死傷者는 現在 判明된者만하여도 百餘名에 達함으로 追後詳細히 判明되기까지 責任者의處罰謝罪賠償等一切의 合法的要求를 只今으로서는 保留한다고 極히强硬한 態度를示하엿다 이에對해서 日高參事官도 日本側要求는 後日로 保留하겟다고應酬하야 會談이 約二時間에 미첫는데 責任問題를 中心으로 問答을 反復할뿐으로 何等意見이 一致되지못한대로 午後六時半에辭去하엿다 그런데 日高參事官은 十日外交部長 王寵惠氏와 會見하야 陳次長에 對한것과가튼 交涉을하게될터이다

戰死者弔意次 歌舞音曲停止

其實은臨時戒嚴令

【上海九日發同盟】上海市는 去七日以來市制施行十周年記念慶祝을 行하는中인데 九日에 이르러 市長代理兪鴻鈞氏는 今次蘆溝橋事件에依한 多數死傷者에對하야 弔意를表한다는 理由로 九日은 特히市內 一切의 歌舞音曲을 中止하라는 諭告를 市民에通達하엿다 右는 表面의 理由뿐이오 實際로는 市內의慶祝氣分에 乘勢하야 蘆溝橋事件을契機로한 北中의新時局에 刺戟되여 자못不穩한 形勢를 示하고잇는 上海學生及宗敎分子의 蠢動을防止하기爲하야서의 臨時戒嚴令이라고도할수잇는데 公安局은 九日朝來總動員하야 嚴重警戒에 當하고잇다

國策關係 新規豫算 十五日까지提出

總督府明年度豫算은 政府의財政三原則에 基한것의 豫算을中心으로 編成키로 決定하고 目下各局課에서 編成中인데 特히 國策에 關聯하야 急을要하는 新規事業은 十五日까지 全部財務局에提出하도록 九日政務總監通牒으로써 示達하얏다

본네佛藏相의 赤字財政克服案

【巴里八日發同盟】八日夜 본네藏相은 閣議에서 決定한 赤字財政克服案의 內容을發表하엿는데 그要旨는 如左하다
一、佛國政府는 通常收入으로 二十六億法、鐵道收入 [illegible]億法 合計 百五億法의 增收策을 決定하엿다
一、增收豫算의 主되는 方法은 가、最近法院에 關한 投機로 獲得한 不當利得의 沒收 나、脫稅防止에 依한 收入增加 다、所得稅를 增加함 라、國稅地方稅의徵收 마、國營鐵道賃金을引上함

人事·集會

▲相川勝六氏(新任宮崎縣知事)十二日午後四時十五分京城驛發赴任
▲桂琪遠氏(新任拓務省事務官)九日夜入京中島旅館에
▲鄭河潤氏(日本蓄音器京城支店文藝部長)吹込次歌手八名을引率코十一日午後노조미로渡東

八面鋒

◇線路를 베고자다가 一時에 네生命이 사라젓다. 三兄弟와 또한사람.
◇이러케 허름한生命일진대 生死에는關心을 둘것조차업스나 生死의貴한줄을 모르는단치 可憐한노릇.
◇夏節事故中의 또하나는 모기장火災로 人命을損傷하는일、해마다 영금을보면서도 注意가不足함은可嘆.
◇사람의生活中에 가장貴한것이무엇인가、『달고처도이生이 조타』는格으로 生命이업스며 是非가업슬일.
◇더저 生命을 輕視하기를 말어노코 잘 잡잣을가리고 새生活을 要求하자.
◇自殺이 罪惡이라고하면、自殺도아니오 被殺도아니오 不知中 사라지는生命은羞恥.

新交涉團體四十七名

【東京電話同盟】衆議院의 新交涉團體結成에 關하야 淸瀨(國同) 肯木(舊昭和會) 赤松(政革) 龜井(總無所屬)等 四氏는 九日午後三時半부터 麴町紀尾井町의 淸瀨氏邸에 會合하야 協議한結果
一、新交涉團體加入者는 九日로써 大體로마금을하고 四十七名을 所屬議員으로하야 十日

事件의善後處置 數日內交涉開始

【北平九日發同盟】中國軍의 撤退完了에依하야 事件不擴大를目標로한 松井張兩代表의 協議는 完全히 實行되여 一晝夜半에亘한 蘆溝橋事件도 一段落을지엇스므로 數日中에 日中兩當局間에 事件의 善後處理에關한 交涉이開始하게될터인데 雙方이 모두이미 그準備에着手한模樣이나 交涉開始의 時期場所及 代表等은 아직 決定되기까지에는 이르지못하얏스나 大體로 日本側松井特務機關長、冀察側秦德純氏가 代表로되여 交涉에當할模樣이다

今日 少年朝鮮日報 發行

北中及滿洲는어떠한곳?

曠漠한遼東七百里! 蜿蜒連亘한萬里長城

韓晳容

六月十日

아침 여덟時二十八分車로 우리一行은 奉天을作別하고 一路 北平으로 向하게되엿다. 旅程最初의 京城 奉天間直行은 그距離時間으로보아 北行線以上의 長距離 長時間이엿스나 그過半이 朝鮮內의 京義線이엿고 또 夜間通過이엿든關係上 그러케는 長距離로 생각되지안엇다. 그러나今日의

奉天北平

間直行은 遼東벌 七百里를단참에 貫通하고 萬里長城을 바라보며 國境山海關을넘어 異國에서 異國으로 아침부터밤中까지 쉬지안코 疾走하엿스니만치 이번鐵道旅行中에서는 가장 興味만코 가장 印象깁고 가장 長距離의 鐵道旅行으로생각된다.

北寧鐵道란 北平奉天間 五百二十餘哩의 幹線으로서 일직이 英國資本으로 敷設된 北中滿洲間의 連絡線이다. 滿洲事變後 이鐵道의 連絡(山海關)問題가 오랫동안 말성이되다가 只今으로부터 三年前에 所謂 中滿通車協定에 依하야 今日의連絡을 보게된

國際鐵道

니만치 一行은 이車를타면서 곳 今日까지體驗치못한 外國旅行의 異味를 맛보는感이 생겻다. 다시말하면 安奉線이나 奉天撫順間에잇서서는 車中에서 日本語만알면 不自由를 늣기지안헛든것이 北寧線에서는 中語나英語가아니면 通話가되지안는다. 列車보-이를붓잡고『너國籍이어데냐?』하고무르면 그들全部가『中華民國』이라고 對答할뿐이오 滿洲國또는 日本이라고 말하는者는 하나도업섯다. 滿洲國內線인 여게서 이러한 現象은 좀怪異하게 생각됨으로 這間理由를 仔細히드른즉 이鐵道는 通車協定後 하로는 滿洲國車가 通하고 다음날은 中華民國車가 通하는데 이車는 中華民國車라한다. 살펴본즉果然 車輛의

構造設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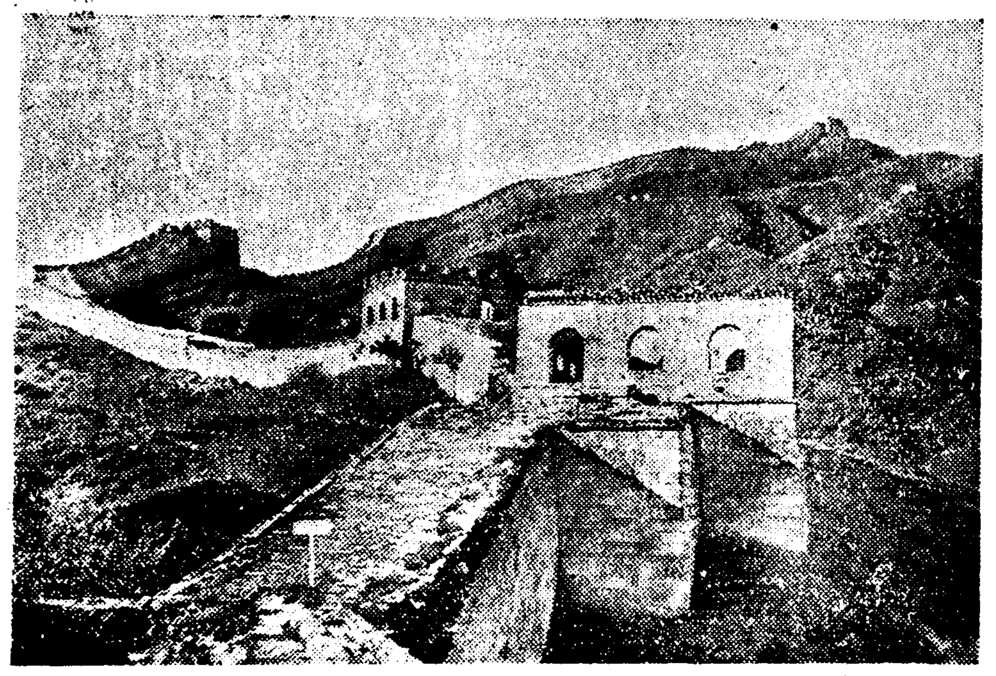
가 滿鐵또는鐵路總局과는 全然다르게되여섯다.

新民 打虎山 溝幫子等 本線重要驛을 지나오는사이에 나는일직이 北米大陸以外에서는 보지못하든 無邊大洋과가튼 大平野를보앗다. 다만다른點은 米洲西部의 大平野는 그大部分이 未開墾의 大草原이엿고 人家가거이보이지안엇슴에 反하야 只今通過하는 이平野는 人家稠密하고 조그마한 未墾地도 보이지안는 點이엿다. 이것이 所謂 遼東平野라는것인데 朝鮮서普通『遼東벌七百里』라고하지마는 일흔아참부터 해가거이질때까지 어데하나업는 茫茫한 地平線을 疾走하여온 나의게는『遼東벌一千里』도 넘는듯 하엿다.

午後零時頃 汽車는 錦州(錦縣)驛에 다엇다. 驛構內에는

日滿軍警

의 警戒가 더욱森嚴하엿고 驛前에는 日本軍一小隊가 『가께아시』를하고잇섯다. 나는여게서 昭和六年末 日本軍의 錦州攻擊당時 國際聯盟을 演劇舞臺로 滿洲事變을 圍繞하고 世界輿論이 騷然하든 그때를 回想하지안흘수 업섯다. 누구나다 잘아는바와가티 錦州는 滿洲事變勃發後 張學良이 이곳에 臨時政府를 組織하고 이미 이러버린 滿洲奪回를 企圖하든곳이다. 奪回工作의 進展에따라 十一月二十六日夜關東軍이 錦州城陷落을 目標로 行動을 開始하든때、同三十日 突然 日本軍의 原駐地撤退命令이내려 戰鬪行動이 中止되든때、그後다시關東軍이 最後의 決意를 하고 十二月二十九日부터 行動을開始하야 盤山、打虎山、溝幫子等을 占領하고 張學良軍의撤退에 따라 翌年正月三日 日本軍이 錦州에 入城하든때의 全世界에 波及되든 『센세이숀』의 發源地가 이곳이엿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될때에 나는 떠나는車中에서『錦縣』이라는驛名을 다시한번치여다보앗다.



連山、綏中驛等을지나 山海關을 接近함에따라 西南方

高山峻嶺

에는 巨大한城壁이 보이게되엿다. 團員中그누가 『萬里長城을보오!』하고 소리를지른다. 一行全員이窓門을열고 서로 더잘보려고 야단이다. 中에는 感慨無量으로 詩를 읇는분도잇섯다. 『萬里長城!』이것은 너무도 有名하다. 東洋은勿論 全世界에普通하야 글字이나 읽는사람은 다아는 萬里長城!(The Great Wall)이 有名한 萬里長城은 只今부터 二千年前 中國天下를統一한 秦始皇이 北方匈奴(胡)를防禦하기爲하야 築造한 城이라한다. 『亡秦者胡也』라는 方士盧生의말中 『胡』가 第二皇子『胡亥』인줄은모르고 西戎北狄等의匈奴(胡)라고 斷定한後 이것을防備하기爲하야 秦은 支那本部와滿洲及 蒙古國境에

蜿蜒連亘

한 이 巨城는 世界七不可思議의 하나로 屈指된다. 그延長이 八千餘里다하나 直隸、山西의 外內二重城壁까지 合算하면 實로 一萬七千六百里에 達하며 山勢에따라 城의 高低이 한결갓지는 안코나 높이가 十五尺乃至三十尺、基底가 二十數尺、上部幅廣도 十五尺이되어 砲車가 自由로 通行할수잇게되엿다하니 『장난』하고는 들숙한장난이라 안할수업다.

이윽고 中滿國境인 山海關에到着하야 稅關吏의 嚴格한 檢査를 마친後 冀東貿易取締職員의 檢閱을 通過하는사이에 여러가지가 騷然한 物情을 보면서 고맙게도 天津까지 우리一行을마저주신 北平實業家金伯彬氏로부터 北中事情을 大綱드른後 밤十一時二十分에 北平

正陽門驛

에내려 一行은 卽時手配된 自動車로 指定된 宿舍인 帝人旅館의 北平호텔에 드러갓다. (寫眞은 萬里長城)

御贈答用百貨山積 御進物は丁子屋で
誰方にも喜ばれる
丁子屋の商品券
中元大売出し
京城南大門通り
夜間營業……午後九時半迄
地方よりの御用命は丁子屋通信販賣部を御利用下さい
丁子屋

移秧은八割三分 今年農卦는"大吉"

昨朝鮮一帶는比前年好績 西北地方은多少例外

일반의마음을조이든 금년도농형(農形)은 지난오월하순경으로부터 류월하순경에걸처서 상당히한발(旱魃)이잇섯기때문에 걱정하든터이엇스나마 류월말경부터 비가오기시작하야 각지이앙(移秧)은 급속적으로 진행되어 농촌의수미를 저윽이펴게하엿다

지난류월 상십일현재 총독부농림국(農林局) 조사에의한 각지이앙상황을 드르면 팔할삼분으로 작년동기팔할이분 오리에비하면 일분사리의 증가며 작년칠월십일 현재구할삼분팔리에 금년그것(십일일까지 집계를마칠예정)의 대개를 비하면 거의가튼상황이다 그런데 작년 이앙은 비교적일럿스나 이앙이한발이 계속되어 밭곡이국한등량하얏슬뿐아니라 도열병(稻熱病) 기타여러가지 병이 헛섯스나금년도 이앙도 작년보나 사기상으로 보아별로 큰피해는업슬뿐아니라 봄에비가잇섯슴으로 천수답(天水畓)이외에는 이앙후 경과가 상당히 조화서 량호으로 작년과 대개가트나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매우량호하다고한다

今後만順調하면 農形은豐年! 農林局伊東技師談

이에대하야 총독부농림국 이동기사(伊東技師)는 다음과가티 말한다

각지이앙상황은 지난륙월삼십일 현재가 팔할삼분으로 작년동기보다 약간 증가한 셈이나 작년에비하야 그동안 남선일대의이앙은 상당히 진행되엇스나 [illegible] 이앙은 상당히 지연되엿스나 [illegible] 정도까지 상당한추수를할수가잇다 대개 지금까지의 금년농형은 비교적순조이어서 이대로별 큰고장이업스면 풍작을예기할수가 잇스리라 생각한다

[illegible]密賣犯

[illegible] 경기도수원군 [illegible] 주소부정의 [illegible] 으로 작년 [illegible] 조선인에게 아편 [illegible] 기차 전차등에서 또는 [illegible] 도라다니며 절도 [illegible] 여죄를 취조중이다

寄附飜意는拒絶 女學校新設意向

韓仁輔氏飜意勸告次下壤한 張視學官의歸任談

오래동안 문제를 거듭하야 조선교육계에 일대파문을이르키든 평양숭실전문학교 숭실중학교(崇中) 숭의녀학교(崇義女校)의 존폐문제는 일시 평양청년유지 한인보(韓仁輔)씨가 거액을기부하야 쓰러지랴는 숭실전문과 숭의녀학교가 다시소생의서광을 보게되엇고 숭실중학은 리춘섭(李春燮)씨의 특지로 역시 이게하게되엇(?)이엿섯는데 별안간 한인보씨가 밋슌회의 태도가 불만하다하야 이미성명하얏든기부의 취소를 선언함으로 평양일반 교육계에서는 재연된숭전 숭중두학교의존폐문제를압헤노코 물끓듯야단이다

이에대하야 한인보씨의 번의를 권고하고자 급거히평양에갓다가 십일오전에귀임한 총독부학무과시학관 장응진(張應震)씨는 다음과가티 말한다

숭실삼학교의존폐문제는 평양교육계뿐아니라 전조선교육계를위하야 애석하엿음으로 한인보씨의 기부취소를 번의하도록 권고하고자 한씨를만나서 여러가지로 권한결과 한씨는 평양밋슌회 당국자들의태도에 불만을가지고 기부를취소는 하얏스나 그돈을가지고 녀학교하나를 별개로 경영할계획이라는것을 나에게 언명하얏다 숭실전문가튼것은 막대한경비가 만히드는고로 또다시특지가 나서지안흐면 한씨의기부만으로는 물론부족을늣기게된다 그러나 밋슌회본부에서지부진으로 끄을기만하고 확답을 하지안는것으로보든지 기타여러가지 태도로보아 숭실삼학교를 페지하고말작정인것가티도 보인다 하여간한씨가 녀학교를 따로경영한다는언명에 대하야는 동씨가 나에게만말하얏슬뿐이오 아직일반사회에 성명하지 아니하얏슴으로 수삼일정관하랴한다

三重博士의榮譽

世富蘭偲校長吳兢善博士에게 이번은名譽法學博士

세부란스의학전문학교 교장오긍선(吳兢善)박사는 얼마전에그가 일즉이 학적을 두엇든 미국『켄터키』(州)『루이벨』대학으로부터 명예리학박사(名譽理學博士)의 학위를 어더 조선학계로서 찬연한 비츨보엿든바이 경사가 잇슨지 얼마되지안흔작금 이번에는 켄터키주『센터-』대학으로 부터 명예 법학박사의학위를 보내왓다고한다

이『센터-』대학은 명치삼십사년사월부터 만고 기독교리학하나 이리하야 한변동안이라는 긴세월을 두고 오박사가 물리화학과 및 의학일반을 전공하든 대학으로 박사의 한생생활에 가장인연이 깁흔 학교이라하야 이리하야 오박사는 의학박사 리학박사 법학박사의세가지 학위를가지게되야 우리학계에 새로운 이채를 띄게되엿다

(사진은 오긍선박사)

金日成崔賢一派 極度의食糧難

十八道溝서食糧掠奪

함남국경의 보천보(普天堡)를 습격한 김일성(金日成) 최현(崔賢)등 [illegible] 산병비 약오백명은 의연히 팔도구 리명수(八道溝利明水)부근일대에 근거를두고 일부약백오십명은 십구도구 삼도절수(三門節水)부지에 산채(山寨)를 싸코 잇는데 구일오전구시경 경기관총두대를가진 백여명이 돌연 십팔도구 이두강(二頭江)동방 한가동(韓家洞)부락에 나타나 조한말 농마가루다섯말 보리너말 장학두루미 기타식량을 략탈하고 만주인 칠명을볼들어가지고 자최를감추엇다 일단은 극도의식량난에 빠저 언제강안에 나타날는지 몰음으로 강안일대는엄중경계중이다

國旗制定記念

십일일은 일장국기가 안정원년(安政元年)칠월십일일 창정되지 팔십삼주년기념일임으로 대일본국기선양회(大日本國旗宣揚會)조선본부의 주최와 경성부와 경성교화단체 련합회의 후원으로 조선신궁(朝鮮神宮)에서 이날오전여섯시반부터 봉고제(奉告祭)를 거행하게되엿다 국체명징과 국민정신작흥의때를 당하야 일반은만히참가하기를 바란다고한다

(사진은기념식장)

國道局員二名 自動車被襲

滿洲國軍六名이戰死

안동강더안 만주국 국도국림강출장소(國道局臨江出張所) 소원 두명은 만주국군이 십수명의 호위하에 화물자동차 두대에 분승하고 림강현 제오구도령(?)에서 모아산(帽兒山)에 향하든 도중 팔일오후세시반경 강안에서 약삼십리되는 제일구 삼도양초(三道陽岔)부동과하도동 돌연 [illegible]명의 공산병비 백여명이 습격하야 국도국원 두명은 행방 불명이되고 호위중 만주군이륙명은 전사하엿다 자동차두대는 모다 버리고 토문등흔은 모다략탈하여갓다 급보를접한 현경무국에서는 동일오후다섯시 소야(小野)지도관이하 사십명이 자동차로현지에 출동하엿다

惠山鎭과江界間 鐵路敷設計畫

調査員을派遣經濟、地形調査

철도국에서는 총독부의 북조선개발사업(開發事業)에 병행하야 아즉철도망(鐵道網)이 희박한지대에 점차로 철도를부설하야 지상(地上)및 지하(地下)의 개척에 편리를 도모하려는 계획을 진행하고잇는데 혜산진(惠山鎭)강계(江界)사이를 련결할철도를 장차부설할 목적으로 근간에 조사원을 파견하야 경제(經濟)및 지형(地形)의 조사를 하기로되엿다 이조사가 끗나면 다시 측량대(測量隊)를 파견하야 실지측량에 착수할모양이다

懸賞寫眞入賞者所感

『入賞은意外입니다』 金龍九氏談

이등에입상한 김룡구(金龍九)씨는 조선체육회의 상무리사로 체육계를위하야 진력하고잇는분인데 경성시내 무교정(武橋町)삼십오번지 자택을 방문하고 히보를전하니 희색이만면하야 다음과가티말한다

사진예술에 취미를부치기는 십년전부터입니다마는 작년에 백림올림픽에 출전햇든 우리 선수들의 수고를끼처서 『콘탁스』사진기를 손에너흔후로 본격적으로 연구햇습니다 이번 작품은 광장교(廣壯橋)구경을 갓다가 도라오는길에 석양햇볏에 비취인 한강물에 매혹되여 촬영한것을 출품햇드니 그러케입선까지 될줄은몰랏습니다 압호로 더욱연구하렵니다 조선일보사에서 주최하시는 이사업으로 말미아마 우리사진예술계에 큰광명이 더저질것을 밋습니다

"今後로더練磨" 朴明鎭氏談

경성제대의학부 약리학교실(京城帝大醫學部藥理學敎室)에잇는 박명진(朴明鎭)씨를차저 이등에 입상하엿다는소식을 전하니 다음과가티말한다

여러해전부터 취미본위로 사진직기를 즐겨하다가 일시는 실증이나서 그만 두엇섯는데 작년부터 다시취미를부처 계속연마햇습니다 지금은 멧해전과도달려서 기술보다도 사진기(寫眞機)의 발달이 현저하야 회면이기계의 우월에따르는바가만타고 생각합니다 촬영할때에는 무엇보다도 조흔 포-즈를찍으려고 그『찬스』를 잡기에 고심햇습니다 이번의 입상을게기로 일층연마할작정입니다

『從兄의指導비더』 金朋煜氏談

【鎭南浦】본사주최인 현상사진모집에 삼등의 광영을 어든 진남포비석리(碑石里)일백팔번지 김붕욱(金朋煜)군은 룡강군양곡면(龍岡郡陽谷面)출생으로 삼년전에 평양고등보통학교를졸업한후 현재진남포에서 동아상회(東亞商會)란 간판을걸고 휘발유, 금물등을 대규모로 취급하고잇는바 군은학생시대부터 사진예술에 만흔취미를가지고 틈틈이 촬영을하여왓다고한다 군의입상을전하니 군은아래와가티 감상담을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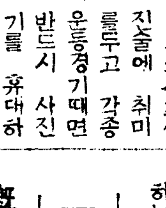
제가 사진당선이 되엿다구요 참말뜻밧깁니다 저도 학생시대부터 사진에대한 취미가잇서 틈틈이 작난삼아하여왓습니다만은 지금가치잇는 재종형되는 김경욱씨가 십여년전부터 사진예술에 만흔취미를가지고잇는 관계로 아직 배우는중에 잇습니다 더구나 변변치안흔 장사를 하고 잇는이만치 촬영하는시간따라 자유롭지 못합니다 압호로 될수잇는데로 사진 예술을위하여 힘써 보고자 합니다 운운

두장入賞은意外 任順泰氏談

【木浦】금번본사 현상사진모집에 삼등에두점이나 입선된 임순태(任順泰)씨는 지금목포신보사(木浦新報社)에 근무중으로 금번입선의 히소식을접하고 곳부내북교동(北橋洞)동씨를 방문하엿든바 동씨는 만면에희열을띄고 치못하며 "두점이나 입선되엿서요! 사실은 세점응모하엿섯스나 사무로인하야 여가가업섯슴으로 체절기일이 박두하여서야 비로소 행여나하고 보내보앗습니다 입선에대한감상이란별로 업스나간단히말슴하면 로(蘆)는 금번처음응모한 함평근교(咸平近郊)의 [illegible] 업스나간단히말슴하면 한감상이란별로 [illegible]

『야변풍경』은 목포송도정해안(木浦松島町海岸)에서 촬영한것인데 바다와 물품은 어부의 강미를 반역광선(半逆光線)으로 조절하여보앗습니다 『콘트라스트』를 조절하여 이배의"필타"를끼여서 창공과 구름(雲)이 보이기위하야 [illegible] 안조로를 뚜렷이 보이기위하야 [illegible]

『團體結合이必要』 朴榮鎭氏談



스포-츠사진에 취미를 기르며 운동경기때면 반드시 사진기를 휴대하고 참석하는 박영진(朴榮鎭)씨를 경성시내 관철정(貫鐵町)오십오번지 자택으로방문하고 입선되엿다는 소식을전하니 기뿜에 넘치는 얼골로 다음과가튼 소감을 말한다

일죽이 귀보에 발표된 현상사진모집의 기사를읽고 이번기회에 한번 결작품을 맨드러보려는 마음에 북바처올랐습니다 본래가 나탕풍경에 대한것을 만히찍어보지못해서 떡고심하든나마지 기일은 박도하고 해서 낙랑이란 제목에는 반드시 넉눌한 물결이 잇서야 할것을 생각하고 한강에서 [illegible] 출품하게되엿든것 뜻하지아니한 입선을하게되엿습니다 이것을기회로『아마튜어』들로서 사진연구단체가튼것을 조직하야 서로련락연구하는 모든이의잇섯스면 합니다

天氣豫報

概況 低氣壓은 天津附近과 太平洋上에 잇스며 高氣壓은 千島와琉球諸島로 퍼지고잇다 滿洲及西北國境部는 雨、朝鮮과日本內地는曇、朝鮮東北岸과 北海道東岸、樺太岸에는 안개가잇다

豫報 今夜는 비가 올터이며 明日은 흐렷다가 가끔가끔 小雨가 잇슬터이다 京畿道全道도以上과갓다

昨日最高	二七度九
昨日最低	一八度九
今朝最低	二三度二
今日正午	二三度九

"京城地方左翼" 十二名言渡

最高三年…最低一年

경성지방좌익노동조합조직준비회(京城地方左翼勞組組織準備會)사건관계자 김승옥(金承玉)등 열두명에 대한 [illegible] 십일오전아홉시반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재판장주심 장기(長崎)검사관여미에 렬석하는데 재판장은 검사의 최고사년으로부터 최저일년징역까지의구형에대하야 다음과가티 최고삼년형으로부터 최저일년까지의징역을언도하는동시에 [illegible]는 삼년간집행유예라는 결을 내렷다

▲金承玉 懲役三年 ▲鄭載 [illegible] 六月 ▲安承樂同三年 ▲金順萬 安昌韓同二年六月 ▲李柱夢 崔成浩 大同各二年 ▲姜貴 崔利七 同各一年六月 南同一年(以上十名中擬父成 鄭載輔兩名은 未決通算三百日其他八名은各二百五十日式未決通算) ▲卞基燮 鄭龍鳳懲役各一年六月(未決通算各百五十日 三年間執行猶豫)

己妻를刺殺

【釜山支局電話】지난구일밤 아 [illegible] 경찰부에서도 여러순사가 현장에 조처갓다

는잇맛 マラソン錠

"이런醫生을 좀說諭해주오"

죽은病者 過重한약갑

이런 엉터리업는 의생(醫生)을좀처치하여주시요 - 부내가회정(嘉會町) 삼십번지의오호박숙경(林)씨는 [illegible] 의생 [illegible] 경남창녕군 경산면신제리(昌寧郡 [illegible]) 김기봉(金奇奉)씨는 [illegible] 내용을 듯건대 김기봉은 소화십년 십일월에그안해 양월금(楊月金)과 결혼 하야 [illegible] 생활을 하면서 재미잇게살어왓섯스나 우연히 작년십일월어느날 자기집후원에잇는 대숩(竹林)에서 올흔발를다친후 이래병석에 누어서신음하엿는데 [illegible] 그안해의 태도가극도로 [illegible] 압록을질러서생명이위독하다한다 그러데 부부간의일이라 자세한것은알수업스나 복잡한사정이 잇는듯하고 날카라온감정이 얼기설기한모양이라하며 급보를듯고 그곳경찰서원을비롯하야 도경찰부에서도 여러순사가 현장에 조처갓다

優良煙草小賣人 三十餘名을表彰

연초소매인협회(煙草小賣人協會)에서는 십일오후령시반부터 부민관에서 우량소매인 삼십일명의 표창식을 거행하엿는데 래빈오십여명 협회원일천백명의참석으로 대성황이엇다

"링"의王者마저 豪華拳鬪戰

東京留學生對京城選拔軍 廿四日밤京城運動場

本社後援

滿天下拳鬪팬이 다가리滿喫하는 拳鬪戰…東京留學生軍對全京城選拔軍의 아마튜어

어느 [illegible] 二十四日午後八時부터 京城運動場特設링에서 [illegible] 對戰케 되엿다 郷土의『링』을 차저 오는 東京留學生軍一行은 [illegible] 人氣를모으고잇는東京各大學의代表選手로서 당처을 東京 [illegible] 二十日경에 京城에到着하야 對抗戰까지合宿練習을行할터이라는바 이對抗戰이 [illegible] 出場選手로 빗나는 [illegible] 追後本紙上에 連載하기로 한다

(寫眞上은 東京留學生軍 下는 東京拳鬪選軍)

An Appreciation to Doctors

醫師諸賢에게謝禮함!

弊行이우리社會民衆保健과衛生向上을爲하야 過去十有餘年間全世界를通하야各種의優秀藥品을選擇直輸入하야医療界諸賢에게供給하고 特히強壯劑로서는 네오톤(NEOTONE)을提供하야 爾來医師諸位로부터其特効함이認証되여널니賞用하여오든中 最近弊行이率先하야 民衆保健運動의工作을強化함을機會로 医療界諸位께서도그目的促成에讚助를不措하시고 同時에病弱者一般에게強壯劑네오톤을多數處方投藥하야주시여實로感銘不已하야 玆에紙上으로써敢히謝禮하나이다

株式會社 柳韓洋行 白

네오톤直輸入發賣元

京城·大連·上海

腫症에는 三仙膏 京城鍾路 共生藥業株式會社 電話光2547(夜間及休日) 1745 振替京城22002

恩給 最長期及最低利로 [illegible] 鄭商會 京城鍾路三丁目七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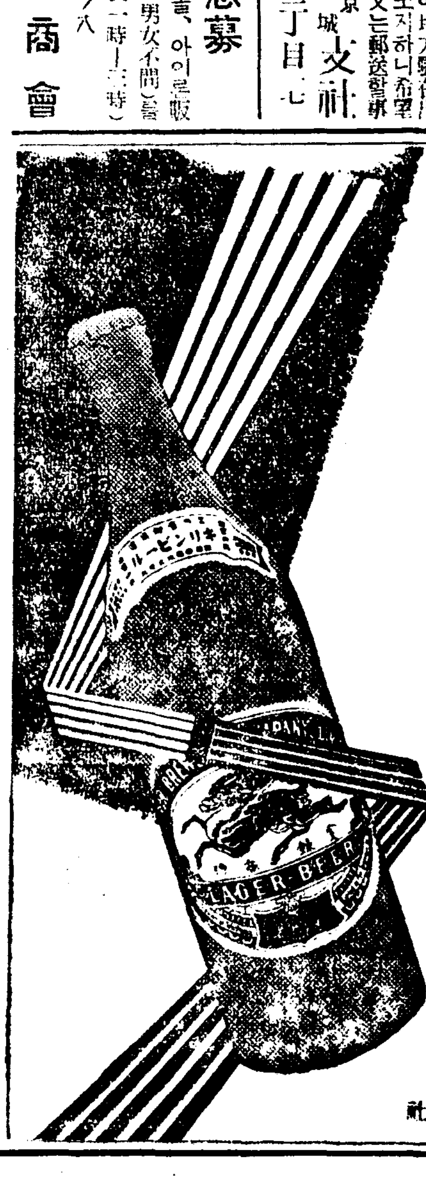
朝報案內

社員招聘 今般本社에서 [illegible] 太平生命 京城支社 京城黃金町三丁目七

販賣員急募 [illegible] 東成商會 仁川府海岸町二ノ八

密林喫茶 鍾路唯一의純喫茶店 鍾路二丁目(完水ビル二階) 吉永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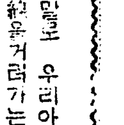
內科一般 特呼吸器 消化器 X光線科 (入院室完備) 堅志醫院 京城府堅志町四九 医学博士 朴鍾璿 電光三一三五番



キリンビール 中元 御贈答最適 一打 半打 化粧函 清涼飲料 キリンスタウト キリンレモン 麒麟麥酒株式會社

山葉ピアノ 堅型 金五百圓以上各種 (山葉オルガン景品付賣出中) カタログ月賦案內進呈 日本樂器會社 京城本町一(電本三四八五) 全國特約店에잇合

カメラと材料 岩瀬寫眞機店 京城本町一丁目 電話本七五五·振替七五五



무엇에 滿햇다할지라도 治療에 急을要하는 夏節의胃腸病에는 아이후면그만야!

胃腸의機能이 極度로衰弱해지는요지음 健康한사람도 無理를못하고 깟딱하면 胃腸障害를 일으키기 쉬운것이온대 平素부터 그리胃腸이 튼튼치못한분이나 慢性大腸가다루가 잇는분은 食慾不振으로 榮養이 減退하야 눈에떠이게 여름을타는故로 特히 이季節의攝生이緊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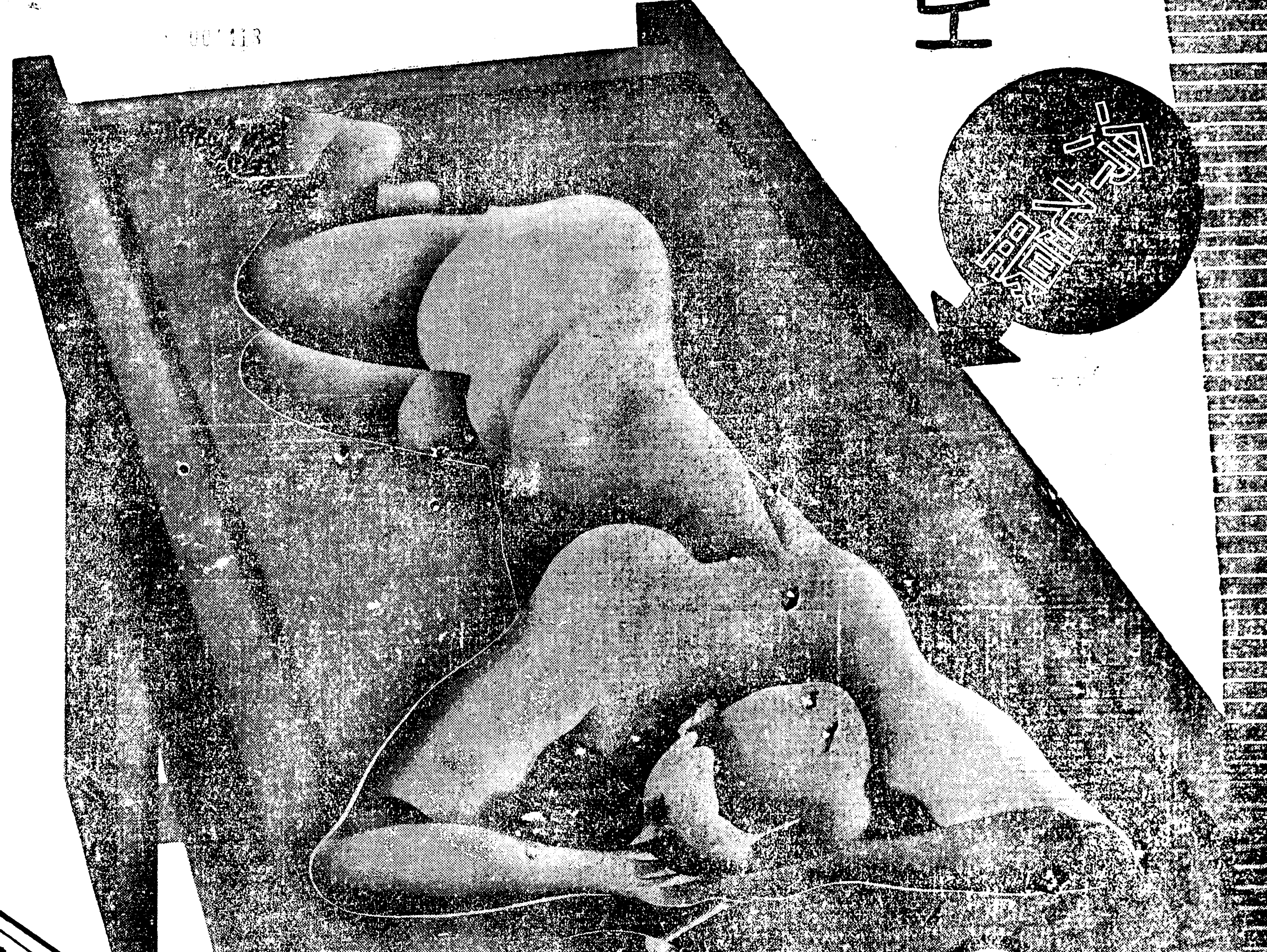
더웁다고해서 생각나는대로 어름과果物, 비ㅣ루, 사이다ㅣ 아이스크림等 함부로 찬것을 드리키면 그야말로 두말업시 下痢腹痛으로苦生하고 一層痼疾을 惡化식히게되는것입니다。 衰弱이더하면 抵抗力도 鈍하여지는故로 赤痢와 虎列剌 腸窒扶斯等의 傳染病에도 걸리기쉽고 조고만한 不注意로 다시 도리키지못할 不幸한일을보는例가 決코 적지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胃腸의 非常時에는 于先 治療藥 아이후를 服用해서 慢性的인胃腸病의 治療에努力하는것이 第一로서 暴飮、暴食、不消化物、腐敗한食物、過冷한飮食物、寢冷等 急性胃腸가다루의 誘因이되는 不攝生도 삼가지안흐면안됩니다 또 萬一 急性胃腸가다루에 걸렷드래도 當慌하지말고 治療하도록 治療藥 아이후만은 常備해서 惡疫의侵入을 未然에防止하는것이 夏節의 衛生常識이 안이겟슴닛가。

治療藥 아이후에는 病原、對症 二重의作用이잇고 主藥이 胃腸內壁의 病變部에沈着해서 炎症을곳치고 粘膜을强케 弛緩을緊縮하고 分泌와蠕動異常을 整調함과同時에 腸管內의 有毒物質을 吸着해서 體外로排泄하는等 廣汎한病原治療를 營爲하고 아울러 가슴아리 噯氣、惡心、胃痛、腹痛、下痢 嘔吐、消化不良 食慾不振等의諸症狀도 消退해서 機能의恢復을 速하게하는故로 夏節의急性症이나 慢性胃腸病에는 理想的입니다

慢性の胃腸病には アイフ

만성위장병에는아이후



▶全國到處有名藥店에잇슴◀

藥價

四日分	七十五錢
八日分	一圓五十錢
十七日分	三圓
特製十一日分	五圓

大阪市東區淸水谷西之町 發賣本舖 順和商會 東京 … 大連 大連市山縣通 振替大連三七六五番 電話七六〇八

家庭

가을양복 준비는지금
―갑시덜들고,바누질이나어

여름― 나리쪼이는볏살에 거리를 다니는 하얀리넨양복이시원해보입니다。그러나 요새사람들의감각은 이러케더운여름에벌서 선선하여지고야말 가을이야기를듯고 생각하도록 되지안흐면안됩니다。이러하맘은 대단히우수운것가트나 경제적으로도이러케하젓입입을 생각해가면서사는것이 지금과가티 물가가빗싼시대에 약은일이라고생각합니다

더위에 쪼들리여 목전에닥쳐온죽다는사람들이 그냥여름양복생각만하고잇슬때 혼자서 슬적가을양복준비를 해보십시요 반듯이 덕이될것입니다。

더욱 올가을에는 외국서 드려오는 양복감을 통제하얏기때문에 양복감이 빗쌀것은뻔한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창고에싸어둔 철느진감을 골라서지어입으면 갑도헐할뿐아니라여름에 입거리가업서서 쩔쩔매는때라 짓는갑도 헐하게할수가잇습니다

그리고 양복을 몸에맛도록천천히 지어입을시간의 여유가잇지안습니까? 양복점에따라서는여름철에 갑북주문을하면 훨신헐하게 할인해주는데도 잇습니다 당절이되여서 누구나안입으면안될때가서 여러사람들과함께옥신옥신하는데 자기도 양복을지어 입겟다고 주문을 하는것은제일 서투른것입니다。당절이나한창 바쁘면 아무리 친한곳이라도 하는수 업시 바누질이나기타 손질이 정하지못하고 자칫하면 몸에 맛지안흔양복을시게 밧지안흐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양복주문하는 비결은 첫재 양복점이일이 업서서 곤난을 당할때 여름에는간복가을에는 겨울것 봄에는여름것으로 늘한철당겨서 주문하는것이 조흡니다 남자양복은 잘만하야하면 류행가튼것을 그다지 안타고 순순하게 입을수도록할수가 잇습니다。

관절염이낫지안허

問 생은이십사세의 청년이온데이십사일처벌부터 이일가한기가들며 전신의관절이 쑤시더니바른무릅이 붓습니다 그래서외과병원에 가보니 관절염이라하와수술까지 바덧습니다 그러나도모지 완치되지안사오며 피검사를 하여보라 하오니 대체무슨병이오며 치료방법을 하교하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재작년겨울부터 의[?]정기이미런 갓글습니다 (곳쏘一讀者)

答 관절염에는 여러가지가잇습니다 결핵성, 기형성, 장액성매독성, 류독성, 표산성등이 잇스니 증세에 의하여 치료도갓지안습니다 의사말이 혈액을검사하라 하엿다니 한번하여보게하십시요 그결과에 의하여치료할것입니다。매독성이 잇스면구매치료를하여야 속히나흘것입니다。아일 혈액반응이 업더라도기왕에 매독에 걸린의심이 잇슬때에는 시험적 치료를 하야보게하십시요 (京醫院長 朴)

오이나유자로 훌륭한화장수
고급품보다못지안허

더울때는 땀과기름이 만히나서 피우가 더러워지고 여드름과 죽은깨가 나기쉽습니다。그리고 볏살을쪼이면 살이 타기쉬운때임으로 늘 주의하지안흐면 얼굴을 망치노흘염려가 잇습니다

항상피부를 청결케가지고적당한 영양을 주기위하야조흔화장품을 쓰지안흐면안됩니다 그러타하야 갑비싼 화장품을사서써야 된다는것은 안입니다 보다도 요사이 우리네가먹는무성귀가튼것을 이용하면간단하게 될수잇는것입니다 화학적으로 만드러진것보다 가정에서만드러쓰는 순식물성의화장품이 도로경제될뿐아니라효과도 훨신낫습니다

오이화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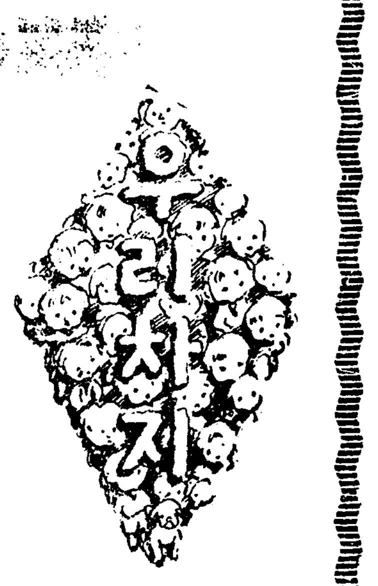
오이집은 씨조흔화장수입니다 살결을 희게하고 부드럽게합니다

반찬작만할때 오이로막울잘려서 얼굴에 문지르는것도효과가잇스나 어것을오래 보관해두고 쓰도록 만드러야겟습니다。

오이배꼽을 잘러버리고 두푼가랑식되게 베여서 물을조금너코삼습니다 어것이아주연하게삼게진다음남비를 내려노코싸느라케식혀서 두엇다가 사기그릇에체를걸치고 체속에 탈지면을 고르게펴 에 살머주엇던오이물을 부어서 거르면맑금한것이나옵니다 이러한 오이물 오십그람에 붕산말일그람 정제알콜 십오그람 종류수이백그람의 비례로 섞거서병에 너허둡니다 만약 그람으로 일일히 달어너키가어려울때는 적은사시로 오이물오십사시 붕산가루 한사시 알콜열다섯사시 종류수 이백사시의 비례로 석그면마찬가지입니다。종류수만 드는법은유리병에 물을너허서끄리고 병마게에 고무줄을 꼬버서 그줄을 다른병이나 곱부에너흔다음 고무줄과 병은 차게해서 끄린김이 고무줄을 타고나오다가 찬운데부디처서 물이되여 흘러나리다가 곱부에담겨집니다。이러케만드러진화장수는 화장품병에 너허서두면 집에서만드러쓰는것갓지안습니다。냄새가 조치못할때는향료를 조금타서쓰면 조흡니다

유자화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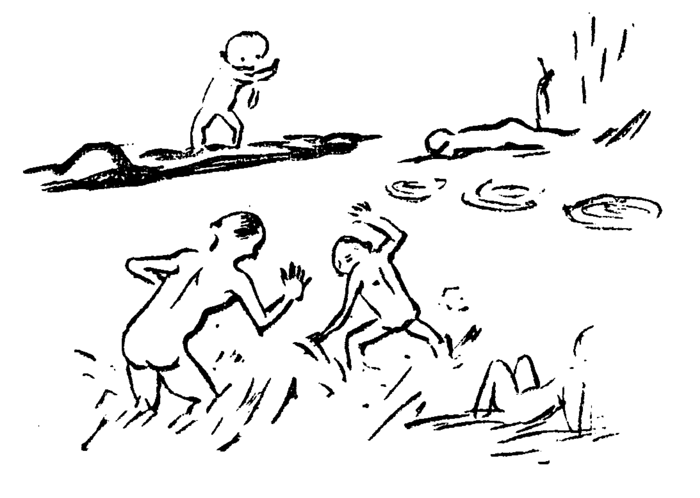
유자껍지를 따서 작게썬나을 남비에놓을 조금넣고 끄립니다 그리하야 오이화장수한드듯이 차느랗게 식힌다음걸러서 유자물이십오 알콜이십오 붕산가루일 그리세린의비례로 섞거서쓰면 조흔화장수가됩니다 그리세린대신에 레몬느즙을 넣습니다 그리세린은 실전어치만사면 매안씁니다。



물작난

물에서 뜨는 수제비는
용길이가 제일이죠。다
섯은 뜨니까요。
물싸움을 하게되면 봉
규가 그악 스럽게날
뜁니다。
석진이나 경진이 또레
는 물장고나 치고놉니
다。

(글쓰신이 황영순)



라디오 DK

十日(土曜)

◇午後六時三〇分 地理이야기『파나마運河』 韓碧波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講演 情緒敎育에對하야 尹貞石
◎어린이와家庭의저녁◎
◇同八時 童謠 1、퐁당퐁당(桂) 2、애기별(桂) 3、참새의춤(桂) 4、오뚝기(秦) 5、제비맞(秦)6、보름달(秦)7、수레(秦、桂) 8、햇빗은쟁쟁(秦、桂) 桂蕙蓮 秦貞嫄 伴奏 DK管絃樂團
◇同八時三〇分 童話劇『月宮에서떠러진토끼』 京城忠信學院兒童
◇同八時四五分 지휘及伴奏 金龍燮 홍내 張明浩
◇同九時 古談『그어머니와 그아들』 車 靑 吾

第一放送

◇午後六時三〇分(大) 이야기
◇同七時三〇分(城) 講演
◇同八時(東) 講談
◇同八時三〇分(京) 御輿洗
◇同八時五〇分(東) 浪花節

十一日(日曜)

◇午後〇時五〇分 라디오 小說『犧牲』 黃 瀞
◇同一時二〇分 레코ㅡ드音樂
◇同六時三〇分 童話『물사람(人魚)』 高在天
◇同六時五五分 修養講話 朱 鎬 宣
◇同八時 一、小春香歌 二、芙蓉 三、바위打鈴 四、變調 고초 五、맹꽁이打鈴 五、휘모리 兪銀鳳 全光泰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興夫歌 楚漢歌 宋英淑
◇同九時 歌曲 一、羽調 初數大葉 二、羽樂 三、環界樂 四、界樂 五、編 歌手 韓成俊 金蘭珠 朴蘭玉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一〇時 바이올린獨奏 協奏曲 G短調 부루ㅡ흐作曲 第一樂章 前奏曲 第二樂章 아다지오 第三樂章 알레그로、에네르지코 桂貞植 피아노伴奏 朴寶淑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城)琵琶
◇同二時(東)能樂
◇同六時三〇分(城)童謠
◇同七時三〇分(東)講演
◇同七時五五分(大)國民歌謠
◇同八時五分(東)日曜演藝
◇同八時三〇分(東)宮薗節
◇同八時五〇分(東)浪花節

十二日(月曜)

◇午前一一時一五分 이야기『伏이야기』 權麻奎
◇午後〇時〇五分 西道歌謠 一、놀냥 二、압산打鈴 三、뒤산打鈴 四、경발님 五、자진난봉가 六、寧邊歌 金順紅 金蘭香
◇同六時(名) 英語講座(六의一) 若林秀三
◇同六時三〇分 兒童과先生의時間 惠化普通學校
一、朗讀 かぜ(讀本卷二第十六課)二年生 二、讀方과唱歌 蟬の衣がへ(讀本卷七第十六課)四年生 五、歌劇『카빨렐리아·루스티카나』中에서 아뻬ㅡ어리아 마스카니作曲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夏期課外講話 高山植物 徽文高普 李軒求
◇同八時 趣味講演 詩人金笠이야기 林炳哲
◇同八時三〇分 朝鮮音律 全國中樞 朝鮮正樂傳習所 會相中 一、打鈴 二、軍樂 玄琴 金雨? 楊琴 金相? 奚琴 閔完植 大笒 金永根 細笛 李炳? 杖鼓 金一宇
◇同八時四〇分 獨唱 一、小夜曲 슈ㅡ베ㅡ트作曲 二、菩提樹 슈ㅡ베ㅡ트作曲 三、꽃은피고지고 李尙春作曲 四、悲歌 마스네作曲
◇同九時 라디오드라마 〃生活點景〃 全一景 放送劇協會 作及演出 李? 效果 陳文演 피아노伴奏 李興烈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大) 이야기
◇同六時(城) 常識講座
◇同六時卅分(名) 童話
◇同七時卅分(東) 講演
◇同八時(東) 新日本音樂
◇同八時卅分(城) 朝鮮音樂
◇同八時四十分 寄席音樂
◇同八時五十分 滿洲音樂
◇同九時(城) 義太夫

長篇小說 찔레꼿 【78】

金末峰作 金能超畵

꼿은피여건만(九)

「땡땡!」

하고 두시를치는 소리와함께침대위에누어잇든 경구의몸이 이편으로 도라누엇다

임금님의 용상가티 부드럽고가벼야운 침구가 깔려잇는침대에누어잇스면서도 경구는 기픈잠에 들지못하고 몃번이나 이쪽저쪽으로 도라눕는것이다。

그는 지곳이 눈을감은채 다시잠을들라고 맘속으로 하나, 둘셋, 넷……백 이백까지세엿다。그러나 아까부터 눈꺼풀우에서만 뺑뺑돌든잠은 숨박꼭질하는 어이모양으로 영ㅡ 달아나버리고말엇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이러낫다 그리고 유리창을 여러제치고는울드러 먼하늘을 우러러보앗다 맑게개인 가을하늘이다。

쏘다질듯 별들이 찬란하게소근거리는창공이 손에닿치면 사뿐자기아페 나려와 안질듯도 십다。

경구는 별들을 물끄러미는듯이후ㅡ하고 큰숨을 내쉬엇다。드문드문위치를 정하고잇는 여느성좌(星座)에서

「경구야!」

하고 소리가 들리는듯하고 그리고 그별들은 하ㅡ야케 여윈어머니의 얼굴로 보이는듯하엿다 경구는 견딜수업시 어머니가 그리워섯다

그러나 지구의어느곳에 가서라도다시 차저볼수업는 어머니인것을 생각할때 경구는 이미무덤속에드러간 어머니의 몸의뼈라도 추려서 생리화 표본가티나지면 자기서재에 방이면 자기침대겨테 세워두엇스면시펏다 정말 뼈라도 돌가티딱딱한 뼈라도

「어머니!」

하고 부를수잇다면 아아―

경구는 어머니가 자기겨테게시면 비록 혼이나가고 살이녹은그뼈만이라도 자기아들의 간절한 이소원을 알어줄듯시펏다。

어머니에게 구하여 엇지못한것이 무엇이엿드냐

다섯살때 서울서 첫공진회때(박람회)를 그때는 공진회(共進會)라하엿다)정말 탄환을너허서 색릉을수잇는 총을사달라고 떼를썻슬때 아버지는 위험하고 또힘에부친다고 안사주시는것을어머니에게 매달려 간청을할때어머니는 아버지몰래 사주셧것다 그뿐인가 일곱살에 빼ㅡ스뽈(野球)에쓰는 운동기구일습을 어머니에게 졸라서 어덧고……허이면 끄치업는일이다。

마침내 경도제대를 졸업한뒤에세계일주를 떠날때에도 아직일르다는 아버지말슴에 어머니는오직 아들의맘을 기쁘게하기위하여 얼마나 열렬히 또간절히남편이 설복될때까지 참으로경구어머니는 두끼나 밥까지 굶엇겟다―

그러케도 자기를 위해주고 압흘이도 예끼고 중하이든 어머니가 아아ㅡ지금 경구가 어떠케 한처녀를 위하여 가슴을조이는것을 알엇드라면!

경구는 또한번 새파란 별들을 우러러보며

「어머니!」

하고 불럿다。그목소리는 약간 떨렷다。

「어머니 저는 정순이라는처녀를 사랑합니다。어머니 이것만은 정말 어찌수업는 저소원이올시다」

어느틈엔가 경구의 두뺨에는 뜨거운눈물이 줄기지어 흘르기시작하엿다。

경구는 귀국하든 첫날 경성역에 내리고 그리고 정순을보는순간 벌서 그는 자기에게잇서서 어떤 운명의 처녀엿다。

그의 맘은 자석(磁石)의 아페나온 쇠조각과가티 정순의일거수 일투족에 완전히 끌리고 마럿것이다 경구는 귀국하여 오늘까지 삼주일동안 하로라도 아니 단한시간이라도 정순의 존재를 이저본적은 업섯다。

그는 자기자신의 사랑을 경솔하다고 스스로 비난도 하여보앗다 그리고 진주운희의 미모와 그가정이 어떠케 교양잇고 도운희가 외딸인이상 그집재산까지 마땅히 자기에게로 올것까지도 생각해보앗다。

그보다도 경구는 일전에 여주라는 처녀에게서온 편지를……노골적 구애(求愛)의 글발을끄내보기도하엿다。

미국서 칼렛지(전문학교)를마친 여주는 영어잘하고 음악잘하고 뿐만아니라 그가마른 과목이 가사과(家事科)인지라 요리, 재봉, 육아(育兒)간호, 심지어 원예(苑藝)건축까지 능통한상식을가지고 잇는것이다。아프로 자기가 사회사업에 헌신을하려고 각오하고 잇는이상 그는 마땅히 여주와가튼 배우자를 선택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그러나 경구는 맘으로 소리를 질럿다

「다ㅡ아니다」

하고 그는 자기감 기픈꿈작이에 조용히 숨어잇는 햇비닭이가튼 정순이를 생각하는것이엿다。

세시를친지도 오래되엿다。

대문에서 뿡ㅡ하고 짧은경적이 울리며 자동차의 헤들라잇이 밝게뜰에 가득하여젓다 아버지가 도라오시는것이다。

조만호씨는 안해가 세상을떠난뒤 오늘 아니 어제 비로소 은행에 나갓든것이다

저녁때가되여 그의 친지들이 심집으로 끌어간것이다

그들은 사양하는 조은뒤에게 술산에서나온 맹수를 포위하듯조만호씨를 태우고 그리고 요리을 퍼멕이고 그리고 두취의 조와하는 기생을담불려 그와한자동차에실어 ××호텔로 보내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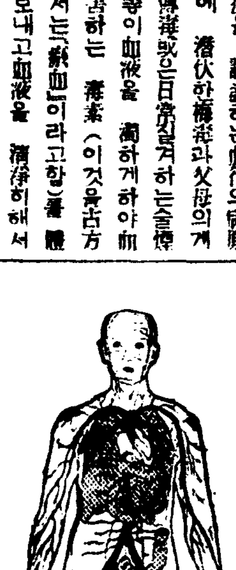
그들은 이것이 친구로써 안해가죽은지 불과 반달이되는 친구를 대접하는 가장조흔 방법으로 생각하고 서로를 만족 한듯이 빙그래 아니 소리를 내여 우섯다。

그우슴은 배우자 가죽으면 평생토록 다른이성(異性)을 대하지아니하여야만 착한사람으로인정밧든 여인이란 동물로 태여나지아니하고 남자라는 전능(全能)의 인간으로 세상에 나온것을 만족하여 웃는웃음이리라。

안해가 눈이시퍼러케 살아잇는데도 들식생각 다른여인을 겨느릴 권리가잇는이상 그안해가이미죽어 흙으로도라가고 두주일이란 시간이 지난이날 술을마시고 춤을추고 그리고 기생의 머크러운 가슴을안는것이그들 사나이라는 인간만이 향유(享有)할수잇는 특권인지라 망처(亡妻)에게대한 여간미안한생각과 후회가 약간 그의양심을견드린다한들 어며 사회라는조직이 그들 사나이들의 본위로되여잇는이상 그후회라든가며언이란생각은 무더운밤 모기한마리의 무는고통보다 훨신 가벼운것이아닐까

더위먹음과夏瘦에注意
血液을清淨히하면
頭腦도시원하고튼튼히된다

보기흉한두통이업서지고 憂鬱한머리는 산뜻해지고 煩悶의上氣眩暈은업서지고숨이막히는肩臂痛을낫게되며 耳鳴의不快도업서져서 動悸와 숨갓븜이鎭定되야언제하면 밤에실컷安眠할수가잇슬가이러한諸症을 誘發하는血行의病原即體內에 潛伏한梅毒과父母의게서 遺傳한病毒은日常痛苦케하는全身의毒素이血液을 濁하게하야血行을妨害하는 毒素(이것을古方醫學에서는「瘀血」이라고합니다)를 體外로내보내고血液을 清淨히해서血行을 整調만하면 前記의症狀은 輕快治癒케되는것입니다。血不順은萬病의 原이라고해도 過言이아니다그러고이毒素가 腦를侵害하야腦溢血을 誘發케하면 血壓에異常을일으켜 腦溢血이나狹心症의恐怖도 豫防하는것은 여러분이充分히 아시는바입니다。이危險을未然에防止함에는毒素即「瘀血」의排泄이 무엇보다 緊要합니다。



瘀血療法은
酒毒 病毒을업새고
頭重 耳鳴 肩臂痛과
腦溢血·狹心症의
恐怖를未然에防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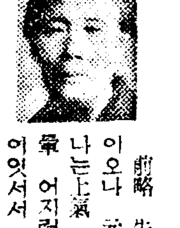
自慢과痼疾가업는이업다고옛말에도잇슬만치性에는또면서 人間의本能의 틈을 타서 侵喰하야 猛烈한 繁殖力으로 擴大하고 其他의 外因도더처서 所謂瘀血이되야 우리네를 苦生식히는것입니다。이瘀血을 從來는거머리나 吸角으로 瀉血法이나 破血劑라고 稱하는峻下劑等으로治療하엿섯스나 어느것이나 幾分의副作用이잇는 缺點을 痛感하고 이것을 現代醫學을 基礎로病理的 藥理的研究에 依한再檢討는 體外로 排泄해서血行을整調하고 煩悶거리가되는 症狀을自然히 治癒하도록하는 新療法의創見에 成功햇습니다。如何히하야 鬪病의實績을 들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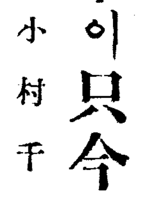
詳細는當研究所에서 進呈하는「ふる血療法」講書를 一讀하면무엇보다幸甚입니다

德澤으로頭重,耳鳴도낫고 安眠이되야健康體로 (病毒에서)

和歌山縣 三浦時雄

【前略】今年二月頃부터 머리속이 압흐고 漸次耳鳴, 肩臂痛이잇고 처음은 單純한 感氣인줄알앗섯는데 날이 거듭할수록咽喉가 부어서 물을마시는대도압하서 못견듸게되야 結局은귀도안들이게되야 病은날로더해갈뿐이엿습니다。世上에서는 불이라고 뒤떠드는대 나혼자 苦悶하고잇섯습니다。醫師의게 血液檢査를바든즉 病毒性으로 생기는것이라고 해서 나는놀나고 急히해合니다 어떤雜誌에서 フルチ錠을알고買入하야 服用하여보니漸漸効果가나타나서 頭重耳鳴肩臂痛이 나어지고 겨기다부름도 減하야 現在는 食事도잘하고 血色도 조아저서 밤에도安眠을하고 四五日前부터 일도하게되엿습니다。





高血壓이常態로나리고 上氣 眩暈이只今은

新潟縣 小村千代子

前略 失禮이오나 元來 나는上氣 眩暈 어지럼症어엇서서 조고만行步에도動悸와 숨이갓버서 一次醫師의診察을바드려고하엿사오나 시골이되여서 醫師에게갈려면二里나되여 나어먹은나로서는 그리저리못가섯습니다 그러태 前月沐浴湯에서 突然卒倒… フルチ錠服用後는 몸의調節이조와저서 요지음는手足의재리는것허구등이덜해저서 血壓도常態에가깝게내리고 上氣眩暈도업고절어서부터 第一煩惱하든耳鳴 肩臂痛이나어지는대는 나뿐아니라집안이다ㅡ기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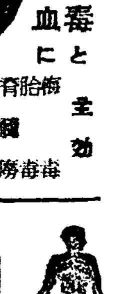
前東京吉原遊廓病院
小島鳳明先生創製

錠チルフ

排毒と 順血に 主効

梅毒 胎毒 血壓亢進 動脈硬化 中風 半身不隨 心悸亢進 甲狀腺 腺病 喘息 リウマチ 神經痛 ヒステリー 頭痛 常習便秘

價格 十一日分 壹圓 / 廿二日分 貳圓 / 五十日分 三圓五十錢
(全國有名藥店にあり)



無代進呈

古醫學에서再檢討
病毒排除 血液循環とふる血療法 (四六判美冊子)
藥書로申込하면即時送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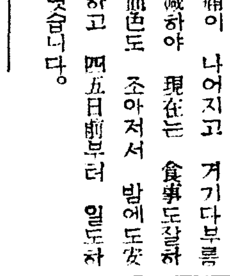
◇이런症狀잇는분은 꼭一讀하시오
▼頭痛、耳鳴肩痛 手足이자리는분 (中風、神經痛)
▼動悸、喘息寢汗 冷汗으로煩悶하는 心臟衰弱人
▼記憶力이薄弱하고부름으로苦悶하고安眠치못하는분
(梅毒、神經衰弱)

申込所 東京市京橋區西八丁堀二ノ十
古醫學研究所
電話京橋(56)二五八四番·二六二八番
振替口座東京大五三〇八番

비다가그립고 山이그리운 녀름
海恋し!山恋し!の期節

어데를가드레도손쉽게가지고갈수잇는
手軽にお伴する!

스피ㅡ드整髮料 직구
理容師 丹頂!!



丹頂チック

파리ㅡ製보다優秀 國産最高基準品
純植物性 專賣特許

涼しい整髪感です 夏は丹頂に限ります

旅行에携帶케便利한重寶

近代女性의모ㅡ든 情緒體整한에 丹頂이愛用되다

丹頂ヘヤートリン發賣元 金鶴香水株式會社 各데파ㅡ트・藥店・化粧品店에잇슴

學藝

創作方法의新局面
—告發의文學에對한再論—
② 金南天

그러므로 소시알리스틱·리알리즘의 具體化의 方向을 찾기爲하야 우리들의作家의 作品傾向을 살펴보면서 數三行의短文으로서 그것을 槪括해볼려는남어지에 多少不充分한

一表一 現이잇섯든것이 事實이라하여도 그것을가지고 筆者의文章을 評家와 作家의 對立으로 曲解할必要는 全然업섯든것이다. 筆者가 諸氏의 創作態度를 批判하는 마당에서 窮極의 目標로한것은 結局우리들文學部隊의 一步前進以外에는 아무것도업섯다. 그것이 萬一 챗죽을주어서 한時間에달릴것을 半時間에 달려갈수 잇는말(馬)이라면 우리는 이사랑스러운 貴重한말에게 數百番의 아픈챗죽을주는것도 사양치안흘것이다. 우리는 그러케하야서成長하엿다. 우리는 峻嚴한 自己批判을 生命보다도 貴하게여기지 아니하엿든가. 그러므로 昔日의 文學을 차저보기 爲하야는 前日에 數倍하는 峻嚴하고 無慈悲한 自己批判을 經由하지 안흐면 아될것을 覺悟하고잇다

爲先筆者는 前日 푸로文學의 重要作家에잇서 共通되는特徵으로써 차저볼수잇섯든 思想性의低下 卑俗한리알리즘에의逸脫 時代的反映의缺如等等에對하야 一一層詳細한 追窮을

一企一 圖하여 이것을 通하야서만 물려고한다 이러한 諸缺陷의克服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지금 生活하고잇는 이時代的霧에對한 告發로써 새로운 文學的精神을把持할수잇을것이다

다시말하면 어떤作家에게잇서서는 近二年間이나 作品에손을대이지못하엿고 (例컨대 兪鎭午氏나筆者)꾸준히 作品行動을 繼續해온作家들의 大部分이 또한前記와如한 逸脫을經驗하지아니치못하엿다면 그것은 大體 무엇으로부터由來된 事態일른가。우리는傾向의指摘에 滿足하여서는 一步도 前進할수업슴을알고잇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어떠케하여서 생겨낫는가 그原因은 무엇이엿는가를 綿密히討究해보지안흐면안될것이다。

이原因에對하야는 勿論前日의論述에서 客觀的情勢의變遷과그것에對한 準備의有無 新創作理論의歪曲된 輸入과 誤解等等을들어서 追及해본적이잇섯고 그것은 또 그것으로 가장重要한

一根一 據가잇다고 생각하고잇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어떠케着手할까』하는 問題에到達하여잇는 우리들作家를具體的으로 새方向에就하야 開拓의길을터듣을 勇氣를내어주지안흘것이다。

評論家의한사람이 自己혼자歪曲된휴-매니슴을 떠들고 作家에게 휴매니슴에 依據한作品을 맨들지안는다고 作家의敎養이不足한탓이라고 쓴것을 본일이잇다。그러나 敎養잇는 評家自身휴-매니슴을 作品속에서 具現하기爲하야는 어떠케하여야한다는具體的인 方向을 討究해본적이 업섯슬뿐아니라 都大體 氏의論旨가 朝夕으로 變하는탓에 어느것을 미더야할른지 갈피조차잡을수업섯다。知識階級의『포―즈』의問題 或은小市民知識人에 對한政策으로서의 휴-매니즘을 提唱하면서 그것이 創作方法으로 聯結되기에는 如何한屈折을 通하는가 까지도 明示하지못하고 혓되히 作品이업다고 탄식하는것은

一空一 虛한 獨善主義다。휴-매니슴을 리알리즘에다 갓다부처노키爲하야 機械的인 試驗을 한結果 架空的리알리즘이라는 奇異한것을 만드러논사람도 잇기는하지만 언제어느배에 실려서어데에가 다을른지 알수업는 이가튼不誠實한 提唱이 作家에게局面打開가 되는것은 決코 作家의 갈곳만도 아닐것이다。

그러므로 筆者는 지금 前記의모든 逸脫과停滯의 原因과根據를 作家의創作過程의 觀察속에서 살펴볼려고한다。作家의創作態度가 從來의 重要한原因을外的인 條件에서 살펴보아 不充分을느낀 우리는 우리들의創作過程을 細心히 調査하야 우리들의逸脫의根據를 摘發해볼려고하는것이다。

리알리스트로自處한 우리들이 創作過程에서 或은 아이데알리스트的인過誤를 犯하지는아니하엿는가。그리고 이런것이 잇다면 그것은무엇에基因되어서인가 우리가 우리들의長久한時日동안의創作態度의 內的過程을 한번도리켜 생각해본다면 우리는實로 意外의結論을 가지게될에놀래지안흘수가 업슬것이다。우리들은 리알리스트라고하면서 事實은 多分히 아이데알리슴의傳統을바더왓스며 이것은 實로우리들이가지고잇는 哲學的思想的眞理에對한 素朴히 公式的인把握에依하야 發生하엿든것이다

(繼續)

"春裝"盧太範氏筆—(光州會第二回美展出品)

現代의 思惟와 人間理念
—人間解釋의現實形態—
④ 金基錫

우리들은 지금까지 西洋文化를 支配하야 나려온人間理念으로서 아래와가튼 두개의 人間類型을 생각한다。하나는 希臘哲學및 獨逸의 理性主義에잇서서代表되는 理性的人間의 觀念이 하나는 近代의 機械主義的物質文明을 建設한

一制作一 的人間의 類型이다。이박게도『막스·쉘러』가 그의 論文『人間과歷史』속에서말한 다른세개의 類型 宗敎的人間、데오니소스的人間、無神論的 人間가튼것을 생각할수도잇다。그러나 人間의 自己解釋으로서 가장세차게 人間思惟의밋바닥을 흐르는것은 아무래도 이理性을 사모하는『호모·사피엔스』, 行動을 내여세우는『호모·파베르』의 두類型이라고보여진다。

그런데 첫재이 理性的人間이란무엇일까。우리들은 사람에게 理性이나 思惟가 잇슴을안다。사람은이理性이나 思惟에잇서서 自己를 단순한 自然으로부터구별한다。사람은 워낙理性的存在의意味를 가진다。이人間의理性은究意에잇서서 神의理性에連繫된다。이러케하야 이『호모·사피엔스』의人間理念은 어데까지던지 人間의根本徵表로서 理性을내여세우고 이理性이가저오는『學』또는觀想을 가르처 人間生活의最高標識이라고한다。

理性的人間에反對하야 人間의實存을 어데까지던지 行動이나 生產에 잇서서 規定하려는 다른한개의人間觀이잇다。아페서말한 制作的人間의觀念 그것이다。

이制作的人間이란무엇일까。우리들은 사람이 그자신 한개의 自然임을안다。사람이 아무리 自然을버서나려고힘쓴다고해도 依然히

一自然一 의아들로서의意味를 가지는한에서 人間은어데까지던지 自然의原理를 自己의原理로하지안허서는안된다。그런데 自然의世界는 본대 運動의世界의意味를 가진다。사람은 생각하는理性을 가지기전에 먼저 움족이는行動을 지녀야한다。사람은 그자신 한개의進化된 生物에지나지안는다。오직 단순한生物에대한구별은 저편이機械的運動、이편이意識的行動을 보이는데이다。그러나 이구별도 실상은機械、말、知性가튼『연장』을 가지고못가지고 또그것을 使用하고못하는 조그만差異에서생긴다。이러케하야 이『호모·파베르』의 人間解釋은 어데까지던지 人間의神에의連繫이아니라 動物의人間에의連繫을主張하야 奔放한情念의解放、自然에대한不斷한征服에잇서서 動物的衝動의體系로서의 人間의生存이 構成된다고한다。

『호모·파베르』는 人間을 自然으로부터의 人間으로가르친다。이리하야 하나는 人間을넘어 神의

一世界一 에드러가기를 希求하고 하나는 人間이면서 그대로 自然의體系에도라가기를 主張한다

그러나 現實的人間은 어데까지던지 神과自然의사이에 자기의 定位를가지는것이아닐가。人間은 한개理性的存在가된다。그러나人間의 理性은 有限한理性으로서의 意味를가진다。여기에서 人間의神에 대한謙虛가온다。人間은한개自然的存在가된다 그러나 人間은 自然속에서 자기를 歷史的存在로 主張한다。여기에서 人間의自然에대한 矜持와 優越이 마련된다。人間實存의 眞實한理念은『호모·사피엔스』『호모、파베르』를 그속에 止揚시키는 한개높은秩序로서의 意味를가진다『호모·사피엔스』는主體로서의 人間을보면서 그環境을 보지못햇고『호모·파베르』는 客體로서의 環境을보면서 그主體를 보지못햇다。하나는 말하자면 見人不見境의 立場、하나는 거기에대한 見境不見人의 立場이된다。우리들은 이두구차한立場에서 버서나見人即見境見境即見人의 眞實한立場에 나아가기를 힘써야한다

人間을 主體의世界속에서 차즐때 거기에는 理性의體系가나타나고 人間을 客體의

一環境一 속에서 일허버릴때 거기에는 運動의原理가버려진다 그러나 人間은 본대 理性的=行動的 또는 行動的=理性的存在가 아닐까。理性은언제나 行動的理性의 意味를가지고 行動은 언제나 理性的行動의 意味를가진다。行動과헤여진 理性이잇고理性을 떼여노흔 行動이잇는가。이理性이나 行動은 워낙 어떤한개의 地盤우에서 자기를 理性또는 行動으로主張하기에이른다。이제 이한개의地盤을 理性이나行動에대하야 體驗이라고부르기로하면 人間은 진실로 이體驗的存在인데서 그자신의 根源的規定에만난다。우리들이 흔히 歷史的存在이니 社會的存在이니라고할때 이歷史나社會는 본대 그勝義에잇서서 理性的=行動的世界의意味를가저야하고 나아가 理性및行動의 地盤으로서의 體驗的世界의 意味를가저야한다。

漢詩

落花押春 桐岡 考選

佳作之四 京義線吐峴驛前舊馬洞 張正立

歲月如駒又過春
百花漸盡綠陰新
落來不語空含恨
飛去無情自作嗔
遲遲隨風疑亂絮
茫茫追水若汎蘋
年光半是斯中促
可惜人生此老身

一夏日雜感一 脫帽主義者 (三)
嚴興燮

被害를 입지안헛다고 勝利의 爆笑를 演出하든 民村이 尹의 態度가 突變되면

『홍! 誰帽은 내帽子는?』

하고 둘레둘레 四方을 훑다가 亦是눈치빠른 벼룻으로 民村의 웃洋服을 벗적들고선 맥고모자를가지고 뛰여온 뒤룬부런 無言失笑의 表情이되엿다。

宋은 民村에게 未安햇든지 물끄럼이 훑겨만보며 씽긋이 웃을뿐이다。

民村은 못맛당한 表情으로 두눈을 지긋이감고 옴으린입술과 얼굴의 주름살에 若干의 苦笑를 띠엿다。

向彼와나는 이演劇의 觀客이엿스면서 補助役으로 날뛰엿다。

宋에게 눈짓을하고 尹의모자룸마저 부서드리라고 爆動한것은 이번에는 向彼가 먼저엿다。

그러나 宋은 向彼의 爆動이 엄서도 녀녀히 이자리의興趣의 雰圍氣를 얼마던지 延長해 나갈 人物이라 向彼의 爆動的暗示에 一種의 暗笑를 띠우며 남어지 麥酒잔을 들어키엿다。

마치『가만잇게 한잔더먹고 나서 演劇을 繼續할테니―』라는듯이

암만해도 雰圍氣의 危險을느꼇든지 尹은 갑작이

『자―民村봅쇼』

하고 외손으로 自己맥고帽子를들고 오른손은 주먹을쥐고 醉顔에 紅笑가 넘치는 語調로

『자! 民村! 내맥고모자를 내가 執行합니다 봅쇼 이건아무때 깨저도 여기안조패들에게 깨지고 말러니까 旣往이면 氣分조케 내가 부시는겝니다』

宣言이 떠러지자 마자 맥고모자는

『푸―그』소리와함게 어느틈에 尹의 오른팔에 꾸여젓다 事件은 여기서 一段落을지은듯하나 決코 그러치는 안타。

『大體 모자부시자는 陰謀는 누가햇서?』

하고 民村은 삐―니이알면서도 問題를 擴大시키고시픈 모양이다。

尹은 갑작이 입살을 앙다물고 빈麥酒甁을들어 빙글거리는 宋에게 一大示威를일으키며

『자네 이거 무슨웬수로 어제산 麥藁帽子를 하나도 멋할텐데 두개식 부시는겐가!』

하고 대여들자

『이거왜이래 陰謀本部가 어디인줄알구?』

하고 悽然한 웃음을띤다

尹의 銃뿌리는 나와向彼에게로 번개가티 轉向되자 나는 도적이 제발제러落으로

『왜? 설마 내가 그런非紳士的陰謀야 하겟나! 이사람아! 하!』

하고 시침이를 떼엿스나 向彼의 스파이的 爆笑 때문에 기여이 尹의 銃뿌리는 餘地업시 내게로 아조올마왓다。나는 하마트면 尹의彈丸에的中될번햇다。

多幸이 彈丸에的中되지안흔 幸運이라구나할가! 새모자를 두개나 부시게만든 纏陰謀의 罪와 罰이라구나할까! 나는現場에서 審判을바더다

그것은 向彼가 바로 그날『朝光』에 漫譚를 파러가지고 나와 本町을 지내다가 어느 百貨店에서 一金四圓八十錢을 주고사온 두개의 短杖이 不運하게도 마르끗 기동에 걸렷다가 마침 구두를신고일어스는 尹과 民村의눈에 띠이자 約束이나 한듯이 한개식 집고나서게된것이다。

『마침 잘됏군 帽子안쓰면 短杖이나 집허야지……』

하고 民村과 尹은 態度들이 森嚴하다。

大勢가 드러진자라 向彼는 가장 人心이나 쓰는드시

『암 거저가야지! 彰義門고개를 短杖업시는 못넘어가는만!』

하고 껄껄웃어부친다。

『홍! 그러면 누가 來日갓다줄줄알구!』

尹의 날카로운 對答이엇다

그뒤 어떠機會에 두개의短杖은 宋의손으로 마저 부러저버리고 尹과宋은 몃달을내려 서로눈치를 살피며 脫帽로 지냇다

누구든지 모자를 먼저사쓰면 서로먼저 분푸리를 하려함이엇다。

그리다가 今年드러 民村과宋과尹은 이번여름에 帽子不良講和條約을 서로 맺고―(그條約當時의 書記長格은 勿論나엿다)―一齊하게 새麥藁帽子들을 사썻다 그러나 나만은『脫帽主義者』란別名을 듯는理由가 어디잇느냐?하면 昨年여름의 被害를 大規模로復讐하기爲한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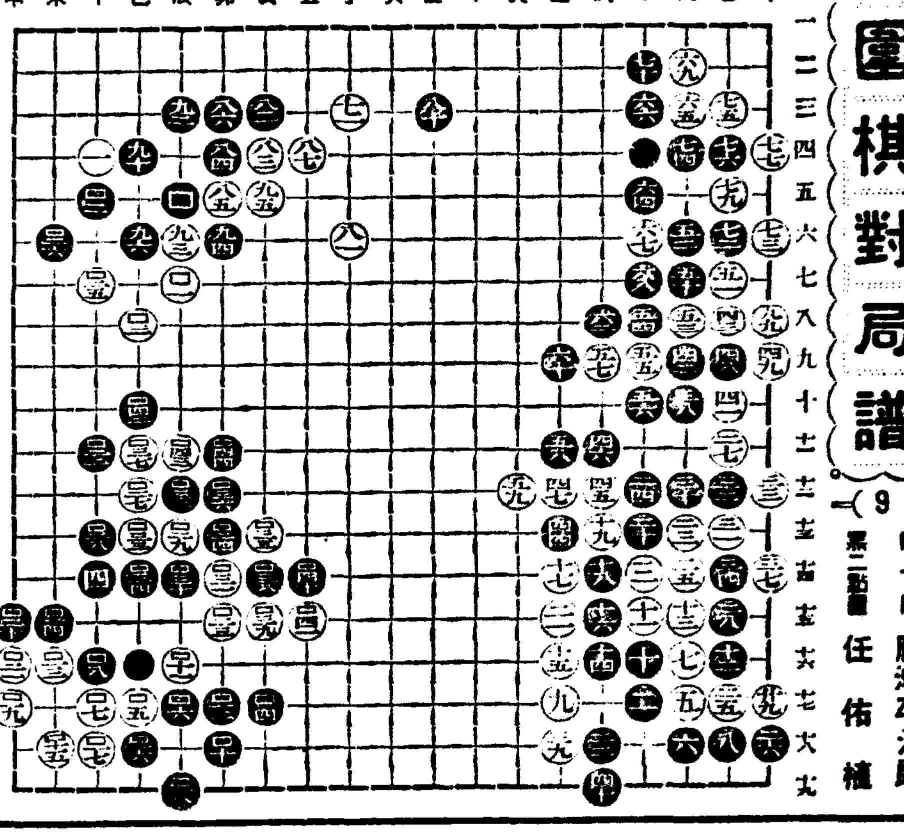
언제나 한번쯤은 民村宋、尹、과 同席할때가 올것임으로 그때를 暗暗裡에 거다릴뿐이다。(了)

圍棋對局譜 (9)

本社主催

白七段 廣瀨平治郎
黑二段 任佑植

○一二九 辰의十三
●一三〇 辰의十四
○一三一 卯의十四
●一三二 辰의十二
○一三三 巳의十三
●一三四 巳의十四
○一三五 寅의十三
●一三六 卯의十二
○一三七 巳의十一
●一三八 寅의十四
○一三九 寅의十五
●一四〇 丑의十四
○一四一 丑의十五
●一四二 巳의十
○一四三 辰의十一
●一四四 卯의十一



觀戰記

黑白이 互相沖斷에 迂回曲折은 複雜함을極하다 白이 黑堅固兩陣을 若干殺略은 넘보는 氣色이 現著하고 黑은 自陣完保가 至可어늘 猶角爭逐은 終見不利로 看做하노라

新刊紹介

▲酒 七月號 朝鮮總督府財務局分室內 朝鮮酒造協會 振替京城一八二九一番 定價五十錢

▲時光 七月號 發行所 京城府淸凉里町 時光社 振替京城五七四三番 定價十錢

▲週刊太陽 第六號 發行所 東京市赤坂區表町三ノ二四 心交協會 振替東京六三三六八番 定價十錢

▲基督敎報 第一一五號(週刊)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九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二一五九〇番 定價一部五錢

▲批判 七月號 (內容)三大公開狀 中央日報社重役諸君에게보내는公開狀外二篇、東亞日報의意圖과中央日報의寂寞、彪大豫算과勞働者、軍需工業이야기、世界情勢鑑鑑等其他 發行所京城府寬勳町一四六 批判社 振替京城一三七六七番 定價卅錢

▲法政新聞 第三六五號(月二回) 發行所 京城府漢江通三丁目一一三 法政新聞社 振替京城一七一五番 定價一部十錢

▲朝鮮農會報 第八十九號 發行所 京城府旭町二丁目一九五 朝鮮農會 振替京城三〇二番 定價一部六錢

哀愁와焦燥로落望케하는

性의無力은

藥理科學과內分泌學說이證明해준 綜合『性호루몬』劑라야만解消된다

補腎補陽劑 킹·오푸·킹스

短期服用으로速效를엇는藥劑이니 明朗의一途로光明을차저주시요!!!

精力이 强壯해지고 性慾이 爆發케된다 日獨醫博 羽太銳治

사람의몸에는 精力과性慾을 供給해주는 無數한細胞가 잇서서 그細胞의活動이原因으로 精力이强해저 體質이튼튼케되며 陽氣가盛해서 性慾을爆發식혀준다 또는精力과性慾을供給해주는細胞는 生殖腺內分泌機能에서産出되는『性호루몬』의 作用으로活動이되는고로 强大한精力을엇고 猛烈한性을 맛보려면 結局은『性호루몬』을 多量으로攝取하야 그細胞의活動을 旺盛敏活케하는것이 무엇보다도 가장重要한점이다

그러나『性호루몬』에는 動物、植物의 兩『性호루몬』이 잇서서 이두가지가 綜合的으로 사람의몸에 適當케攝取되지안는때에는 期待한바의目的을 達할수업다는것이 現今의某理科學과 內分泌學上으로 證明이되여잇다 또는『性호루몬』中에도 人體에 가장適當한것이라야만 完全한效果를 어들수잇는고로 나는 이점을中心으로 多年間 모든動物의性慾生殖器官을 解剖研究하고 古來로부터 傳來한高貴回春藥을 嚴密한科學下에서 分析實驗하야 動物、植物兩性行效成分中에도 人體에第一適合한四五種을選擇하야 質的으로 가장完全한效果를 發揮하게發明한것이『킹、오푸、킹스』이다。

킹스는 以上과如한原理에依하야 製劑된것이므로 單一性호루몬劑가티 長久한時日을 服用하여야만 效果가좃나타나는것과는 性質이全然判異하야 藥이體內에 드러가면 그即時로 生殖細胞와性神經에 直接作用하며 奏效가變方으로 곳發揮되는고로 不幾時間에 疲勞한精力이 蘇生케하야 元氣가 생기며 性神經의敏活한活動으로 陽氣가盛해저서 性慾이爆發케된다。

이런名藥은八十平生처음

慶北 嚴貴燮

老生은 今年이八十五歲이므로 녯적부터 傳해나려온 人生七十古來稀라는말에 比하면 살만큼사럿다고 누구나 말할줄로밋습니다마는 그러타고 人情上죽고시픈사람이 어데잇겟습니까 사는길에 좀더살려는慾心으로 某前大藏大臣이 호루몬을愛用하야 年齡이九十以上이로되 絕倫한精力으로 國政을잘處理하엿다는風說을듯고 老生도 한번試驗코저하야 適當한호루몬等을 求하든中 東京에서留學하는孫子가 알니워주는綜合性호루몬劑『킹、오푸、킹스』를註文하야 服用해보니 十餘日間을 아무러치도안키에 속앗나보다하고中止하려다가 남은것 내버리기 앗가워 繼續햇더니 二十餘日만에 비로소起居動作이 自由롭게되고 元氣가점점盛해지며 그러케 숨내하든하초가 熱氣가생기는대는 感嘆不已하엿습니다 至今은精神도 爽快해저서 氣分이조흐며 食慾도늘고 집팡이집지안코도 外出케되엿스니 이런名藥은 八十平生처음이외다 망영이라고 生覺하실는지는 모르겟스나 數日前에 大邱에잇는아우가 還甲이므로 갓다오는길에 妓女의집에서 하로밤놀고왓섯는데 그妓女도 이런일은처음이라고합니다 十月分도보내주십시요。

性的缺陷에는킹스로

킹스는 性慾學의泰斗이요 第一人者인日獨醫學博士 羽太鋭治先生이 內分泌學說의根本原則을基礎로 心血을傾注하야 發明創製한것인바 精力과性慾이衰退하야 性的缺陷이되는者에게 臨床實驗한結果 即時日에速效가全治者續出하는 大成功을어든 適確한効能을가진名藥이다 이러한藥을두고 不滿과煩悶으로 지낸다면 그것은自己의一生을不幸케하는것이니 明朗의一途로 光明의길을 차지시려는분은 보시는대로 이제곳 注文하시요

總代理店 合名會社 春泉堂 (振替東京七七一番)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ノ一番地

注文은 振替、代金引換으로 註文하시면 至急送藥합니다 藥價는 (一〇〇粒入)一圓 (二八〇粒入)五圓 (六〇〇粒入)十圓이오며 送料는 十五錢만負擔하십시요

이글의公開로謝意를表함

間島 金再學

一寒村의貧農으로 現生活에滿足지안코 二十三歲時로 遠大한抱負로 立身成功하겟다는決心下에 一家北滿으로 移住한一人이올시다 그러나 北滿이물幸福이기다리고잇는것은 아닙니다 酷寒炎暑를 헤아리지안코 東奔西走하야 奮鬪하든中 於焉間 小生도 그만五十이되엿습니다 活動한보람은잇서 現在에는 北滿에서 相當한基礎를잡고 多少의成功은 하엿습니다마는 無理의活動이原因인지는 모르겟스나 十餘年前부터 나날이元氣가업서서 눕고만십고 不眠과頭痛으로 呻吟하오며 萬事에興味를모르오니 겨우쫓으로지내려는이때에 이런기막킨일이 또잇겟습니가 速히健康을 回復시키랴는마음으로 약이란약은 다썻스나 빈약병만 느러갈뿐이요 效果는조곰도업서서 落望送日타가 偶然한機會로『킹·오푸·킹스』를 入手케되여 九疑一信으로 먹어보니 아-이藥이야말로 文字그대로의 靈藥이출현되엿습니다 連服한지 三個月도못되여 體重이 十五貫이되엿스며 不眠과頭痛은 눈녹듯업서지고 悲觀하든處陽까지 完全히回復햇습니다 힘차라는대로 킹스의宣傳을하려하오나 爲先이글의 公開로謝意를表하오며 貴堂의發展을仰祝합니다

킹스發明者는救世主

平北 柳光鉉

보내주신『킹、오푸、킹스』를 服用한後로는 한때의잘못으로 못된버릇을 배웟든것이原因으로 그러케도 百藥이無效하든身體가 完全히回復되엿사오며 또다시學校에서는 蹴球選手로 人氣의集中을 밧고잇습니다 生覺만해도 지긋지긋 합니다 眼痛、記憶力減退、眩暈、憂鬱症、夢精、陰萎가어러케 速히全快될줄이야 千萬夢外올시다 兩親께서도 卒業하는날에는東京으로 留學식혀준다고 許諾하시엿사오니 어것이모도貴堂의德澤이아니고무엇이겟습니가 킹스를發明하신羽太博士야말로 小生만은救世主로 仰慕합니다

肺病 肋膜 全快法

누구나肺病이라고하면 死刑宣告나바든것처럼悲觀합니다。그들을따라서 無效한藥이나器具를팔이고 滋味를지못한療法을强勸하는者가잇습니다。詐欺師가어떠廣告를하든지 藥장사가어떠奇妙한文句를 느리는다할지라도 迷惑해서는안됩니다。結核菌을죽이고 肺病을一氣로곳치는藥과注射는 世界어데나업[illegible] 되고잇지안슴니다。……나야만할肺病肋膜이웨잘낫지안는가 그것은貴下의治療方式이들인까닭입니다。貴下는肺患征服의正當한길을물으고공연히이것저것헤메여서肺患不治를嘆하고잇는것이아닙니가……。여기釋尊의金言四大化和合의原理를基礎로해서全快까지의正當한療法을指導한 松永佛骨師著『肺病治療の原理』와 寺傳의藥草療法을公開해서가르킨『光明のあなたへ』의二冊을肺患退治의弘願에依하야

無料送呈

합니다다只今곳이新聞名을쓰고葉書를보내십시요그래서速히이敎示에依하야救濟의光明에것버해주시오

河內國布施市 功德山德林寺

近藤博士創製

ヘロイン(헤로인) コデイン(코데인) 阿片 コカイン(코카인) 其の他 鹽類 中毒に

モルヒネ

모루히네 헤로인 阿片 코데인 코카인 其他鹽類 中毒患者에 革命的福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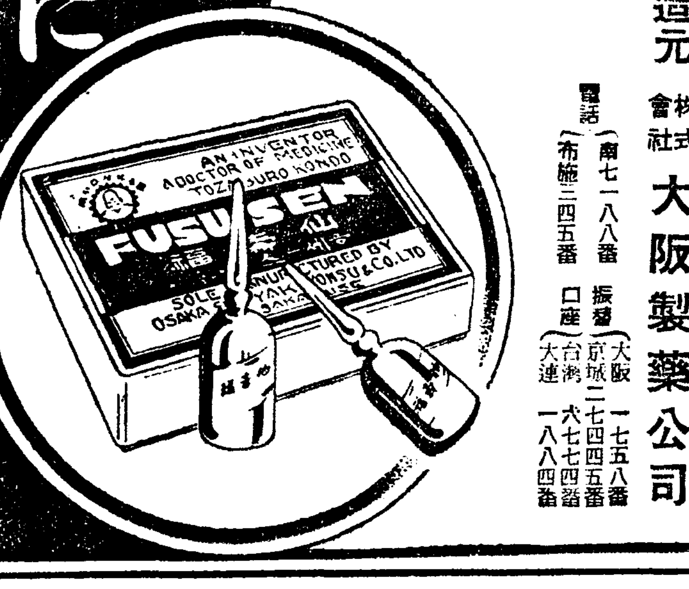
福壽仙의作用과特長

化學技術의 最高峰을것는 複雜且緻密한 製造工程에잇서서 所謂藥物의相乘作用(藥物의相乘作用이란5+5=10이안이고5×5=25이一例이다)을完全히發揮케한優秀한非麻藥性痲醉劑임으로 모루히네、헤로인、阿片、코데인、코가인 其他鹽類中毒者로하여 苦悶悲慘한禁斷症狀을 除去하고모루히네、헤로인其他의 鹽類同等의症狀에잇서서作用이업고 順次그抑壓에引導하는 廉價이고優秀한非痲藥性痲醉劑이다。故로前記의 모루히네、헤로인、코데인、阿片、아루가로이드誘導體其他鹽類中毒者에使用最適한것으로推奬함

包裝 一、五管入 二、十管入 三、五十管入 二五、〇CCCCCC グラム入

特約店募集 特約販賣希望하시는분은 送料及雜費로서 金五十錢切手封入申込하시압。試供品一箱和文獻을送呈함 (이新聞名記入할事)

大阪府布施市下小阪六六四
製造元 株式會社 大阪製藥公司
電話 (南七一八八番 布施三四五番) 振替口座 (大阪一七五八番 京城二七四四五番 台灣六七七四番 大連一八八四番)



FUSUSEN
후―스―센
福壽仙

牙山地方紹介版

山紫水明溫泉都 百花燎爛別天地

廿年前七八十戶의寒村이 一躍七百四十戶로 牙山의자랑거리는溫陽溫泉

本郡溫陽面溫泉里는 溫泉으로 著名한 郡市인同時에 花袍으로 名聲이 노픈郡市이다 距今二十年前에는 不過七八十戶의 小村落이든것이 京南鐵道가 開通됨을 따라 今日에는 七百五十戶라는 鄕村의小都市를 構成하고잇나니 山紫水明하고 天香風和한 陽春四月二十日頃에는 神井館溫井館의櫻花를 爲始하야 溫泉의山野又는 市街의 並木櫻이 滿發하엿슬때에는 實로別有天地非人間의感이 절로나며 이보다조곰먼저 迎春花等이 處處에爛漫하다 西條八十氏作詩의 溫陽小唄에『春日ウラウラ湯槽ノ中ノ戀ノ二人ニ散ル櫻』라고한것은 아마도此를云謂함이 아닌가한다

地面積 一萬九千五百七十七町八反으로 畓이 一萬三千六百四十町步 田이 五千八百八十七町八反步로 主要農産物의 收穫高는 左와如하다 ▲米 一二一、九二四石 ▲大麥 四九、三三六 ▲小麥 四五〇〇 ▲粿麥 一二〇 ▲蕎麥 一九四 ▲大豆 二二六、九三六 ▲小豆 一、六八四

名勝과古蹟

日淸戰跡·靈槐臺 五杏臺·顯忠祠

日淸戰跡 은鹽仁面牙山里에有한 一會丘이다 此는 바로 明治二十七年日淸戰爭의發生地로서 淸國軍隊가 此地에上陸한것이 導火線이되여 豐島沖의海戰、安城、成歡의戰이 展開되야 마침내 日淸戰役이 開幕되엿스며 此地에서北으로 一里可量되는 地點에 白石浦라는浦口가有한바 此地도牙山里와함께 日淸戰役의由緒깁흔곳이다 此를記念키爲하야 牙山里에記念碑를樹立하엿스며 溫陽溫泉서 北으로 約二里可量된다

金玉均墓는 日淸戰跡地인 鹽仁面牙山里에잇다

靈槐臺 는 距今一百七十年前英祖王三十六年八月에 世子莊祖께서溫泉에擧動하섯슬때에 行宮北側에서 御親射의儀를行하시압고 侍臣에게命하시와 槐木三本을植付케하시와 射的의地를標하신것이다 其後三十五年을經過하야 正祖王二十九年春에至하야 郡守卞僖鎭이 槐樹의茂盛함을 宮廷에啓聞함으로因하야 正祖께서碑를 修築케하시고 臺前에石碑를 建立하시고 壇에御製銘을하신것이니 神井館本館前右側에有한 數株의老槐가 卽이것이다 (寫眞은靈槐臺)

五杏臺 는 排芳面中里에잇스며 孟古佛孟政承이라면 아마모를분이업슬것이다 此는 孟公이 其邸內에 銀杏樹二本을 植付하엿섯는데 其根幹에增을築하고 其子孫이先生의 遺德을欽仰하고잇는곳이다 溫陽溫泉서欽東으로約一里可量된다

顯忠祠 는 鹽峙面白岩里芳華山中腹에 잇다 此祠는約三百年前에 建設하엿든것인데 頹廢하야 昭和七年有志의發起로 李忠武公遺蹟保存會를組織하야 七千圓의經費로 祠를再建하고 祠의中央에는忠武公의肖像을奉安하고 右側에는其遺物을金庫內에 藏置하엿다。其主要한것은 佩劍、角帶、玉露、其他日記類等의手蹟이잇다 이것은 溫陽溫泉서 東北으로 約一里可量되고 李忠武公墓는陰峰面三百里에잇는데 溫陽溫泉서 北으로約二里可量된다

農業槪觀

郡中央을 橫斷한 曲橋川 郡界를 貫通한 揷橋川은 灌漑의 利가 잇스나 때로는 水災의憂慮도 有하며 또는 水源의 缺乏不足으로 旱災의憂慮도 不無하지만 忠南第一의 平野인 仙掌平野가잇서 地味大槪 肥沃하야 米、麥、大豆其他 特用作物耕作에 最適함으로 住民의九割可量은 農業에 從事하야 農家戶數 一萬三千八百十四戶 耕作

各界의重鎭들

敎育界元老로豪傑校長 溫泉公普校長 小林權作氏

氏는 大分縣出生으로 明治[illegible]의大川小學校 廣川小學校長 溫陽公普校長等을歷任하고 昭和六年溫泉公普校가設立되자 此校로榮轉後 爾來兒童敎育에 獻身的으로 奉仕하야 智育 德育 體育의三大要素의涵養 營農方法의改善等 氏의功德이 實로 稱讚할바만다 氏가 敎育界에 奉仕한지三十年間 日常豪快한氣相으로 剛健精神을 兒童에게扶植하야 溫泉普校七百의健兒가 剛健質朴함으로써 道內에 斷然異彩를보함은 實로 氏의作格을 表現한것이라하겟스며 兒童의學力이 大槪로良好하야 今年上級學校에 就學한比率이 六割可量이라한다 (寫眞은 小林泉普校長)

自手成功한 實業家 趙炳國氏

氏는元來 牙山郡出生으로 今年四十九歲의 中年紳士인바 儉約家로 天性이溫和하고 頭腦가 明敏하야 弱冠에일으러 將來成功의 巨志를抱하고 不眠不休의 精神으로 業務에 精勵하야 現今二十餘萬圓의 巨財를 일우엇스며 溫泉公普校學務委員、溫陽面協議員等 公職을띄고 公益 敎育等 事業에 獻身的으로 活動努力하야 溫泉公普校 臨時公學校 敎育事業에 援助한바 만흐며 小作人에게도 厚待를 함으로 地方人士의 信望이두터우며 氏는恒常 말하기를 決心만하면 金錢은 自然히모히지만 이것을 有益하게 使用하기는 至難하다고 하고잇다 (寫眞은趙炳國氏)

慈善家로公益家 屯浦自動車部主 李範秀氏

氏는 本郡屯浦面松居里 慈善家 故李救龍氏의 令胤으로 天性이溫厚寬大한 三十以內의靑年事業家이다 氏의行蹟은 一一히 枚擧할수업거니와 大略을 들면 敎育、救濟其他社會各共公團體에 奉仕하는中 屯浦公普校와 舘岱簡易校에는 各巨額의寄附가잇섯스며 先大人의遺志를 奉承하야 舊正에는 面內十五個里에 極貧戶一戶式을擇하야 正租一叺式合計十五叺을 每年中行事로 實行하여오는等 氏의慈善、公益心에는 一般이欽慕하는바로 現在自動車部와 精米業等을 經營하야 實業界多大한功績을나타내이고잇다

模範的實業家 實業主 南廷九氏

氏는十餘年前에 本郡湯井面權谷里로 來住하야 農事方法을徹底的으로改良하며 蠶業의不振을慨歎하고 斯業을合理化하야 蠶繭의年産高三百貫을 突破하고 農村婦女子의暗昧을 啓蒙하얏어지며 農閑期는勿論、農繁期에도 夜間을利用하야 文字普及 普通常識의鼓吹 內外情勢의遷移等을 親切叮嚀히 敎授輔導하는바 敎材는 朝鮮日報 其他參考될만한書籍中에서 拔取敎授한다고하며 多年間同里振興會長으로 農事改良 生活改善、文盲退治等에 獻身的努力을하엿고 또 現今도同里區長으로 公私에奔忙하야 振興會長의職을辭하고 多角的農事의合理化 生活의向上 文盲의根絶等에全力을다하야 頹退하엿든同里에 更生의曙光이 빗나고잇다 (寫眞은 南廷九氏)

溫柔寬厚한 有志紳士 林益善氏

氏는 京城某中學을 優秀한成績으로 卒業한後 氏의鄕里인本郡屯浦面新項里에 도라와 農事改良에 盡力하고잇다 氏의天賦의性이 溫柔寬厚하야 敎育、公益、慈善等各方面에 誠心誠意로援助하고잇다

名望노픈富豪 崔益秀氏

氏는 元來仁州面一流富豪로 天性이 寬厚默重하야 一般의信望이두터우며 敎育、公益、慈善各方面에 多大한 功績이 有한바 仁州公普校는 設立當時부터 氏의 功勞가 不少하며 同面消防組設立時에도 多額의喜捨가잇섯다

祝辭 牙山郡守 晋炎鍾

今般에 朝鮮言論界의 重鎭인 貴報에서 朝鮮第一의泉都로 有名한 我牙山地方紹介版을 發刊하신것을 無限한榮光으로 生覺하는同時에 慶祝에不堪하는바입니다 新聞社에서 地方紹介版을 發刊하야 各方面에 亘한特色잇고 仔詳한報導를하는것은 社會文化進展上 寄與하는바 多大타아니할수업습니다 貴社여! 今後加一層飛躍進展하야 眞實로社會의 木鐸된使命을다하고 兼하야 社運이益益興隆하야 國家社會에 倍前貢獻하심을 衷心으로 仰祝합니다 以上數字로써 祝辭에代합니다

敏活한靑年行政官 忠南牙山郡守 晋炎鍾氏

牙山郡守 晋炎鍾氏는 今年二十九歲의 靑年行政家로서 天性이快活明敏하야 幹事에至極히公平正大하다 氏는일즉이京都帝國大學을 優秀한成績으로 卒業하고 高等文官試驗에 合格하야本道警部及道屬을 歷任하고 昨年中에本郡에榮轉以來 農村振興 心田開發 生活改善、文盲退治等各方面에 亘하야 積極的指導하며 郡民을極히保護하고 部下를子任과가티撫愛함으로 郡民의敬慕 洋洋하다 (寫眞은晋郡守)

交通界의慧星 屯浦自動車部主務 金思殷氏

氏는 交通界의 不振을 慨歎하고 昭和二年鏡山興校를 中途에 退學하고 京城第一自動車學校를 優秀한 成績으로 卒業하고 昭和三年 溫泉自働車部에 運轉手로 就職하엿다가 昭和九年四月에 此를 辭하고 屯浦面松竹里特志家李範秀氏와 提手하야 同年五月에 屯浦里에다 自働車部를 新設하고 一般旅客의 便宜를 圖하고잇다 氏는 天稟이 溫恭하고 外交的手腕이 敏活하야 業務가 날로盛況中이다 最初에는 自働車一臺로 屯浦─牙山間 一日一回往復하든것이 業務의繁昌과 旅客의 增加에딸아 現今은 四臺의 自動車로 平澤─牙山間 一日四回 成歡─牙山間 一日二回往復하야 一般旅客의 不便을除去하엿다고한다 (寫眞은金思殷氏와自働車部)

淳厚君子、松岳面議 李伯善氏

待人接物에 淳淳然有淸雅之風하고 怡怡焉有和平之氣하야 使人으로 敬慕之懷를 自然히가지게하는 淳厚한君子가잇스니 本郡松岳面外岩里에 居住하는李伯善氏가 卽그사람이다 氏는元來名門의後裔로 稟性이寬洪雅柔하며 現時牙山金組評議員 松岳面協議員等 公職을가지고잇다

漢醫藥界의杵城 回生醫院長 趙重範氏

氏는 天稟이 恭謙默重하고 淳厚慈惠하야 可히博愛濟衆의職을 다한다고 하겟다 氏가 斯界에從事하기는 漢醫學이날로 衰頹하야감을보고 慨歎不已하든끗에 十九歲時에 此를專門的으로 硏究하야 十有餘年間 漢藥種商을열고 三十二歲時에 漢藥舊著를쌋흔後 今日에 至하기 凡十六七年間으로 貧困한사람에게는 藥을 無料로提供하고 治療方法을 親切叮嚀히 敎示하야왓슴으로 遠近에 名聲이 藉藉하야 멀리全羅 江原의 貧困한患者도 차저오는일이 잇다하며 昭和十年에는 忠南醫藥組合溫陽支部長에 被選되엿다

沿革과位置

百濟時代에牙述縣、新羅朝에 陰峰(一名陰岑)湯井이라稱하고 高麗初에仁州라改하야 刺史를置하고 後에牙州라稱하엿스며 李朝太宗十三年에는 牙山이라 다시고치고 縣監을두어 統治하엿섯는데 其後大正二年十二月廿九日 牙山、溫陽、新昌의三郡을併合하야 廣袤로 東西七里廿四町、南北八里卅町、面積卅五方里餘 戶數一萬四千六百十六戶、人口八萬八千十人이 居住하며 東은 天安郡과 接續하고 西는 揷橋川을 隔하야 唐津郡과相對하고 西南은 禮山 公州의二郡과 相隣하고 西北은 牙山灣에面하야 京畿道振威郡과 境界되여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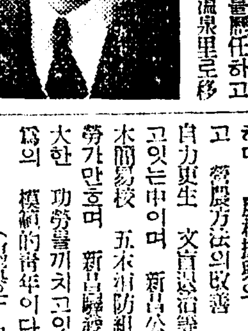
博奕大家인 松南釀造場 李用勳氏

氏는 本郡名門에 生長하야 公普校卒業後 專히 家事에 從事하며 社會奉仕에 誠意로 努力하다가 數十年前부터 松南釀造場을 經營하야 斯界의 重鎭을 일우고 잇스며 氏는 頭腦가 明哲하야 碁博에 精通하여 牙山局面의 稱이 有하다

老練된經世家 忠南道議 柳冀咲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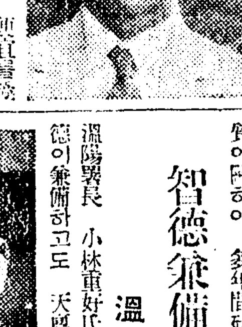
氏는 本郡名品에生長하야 人事機密에精通한 老熟한經世家이다 氏는金融組合이 創設되든當年부터 三十週年을맛는今年까지 組合長에被選되야 金組界의元老이며 本道會議員으로도 官選으로 一次被命되고 民選으로는 今年까지 三回나被選되엿다 以上으로보더라도 氏가얼마나 政治上見識이豐富하고 社交的手腕家임을 看破할수잇스며 公益、慈善、敎育等各方面에 氏의功獻이만코 一般小作人에게도 寬大히處理한다고한다 그리고 氏는方今牙山郡內에 中等敎育機關이無함을 慨歎하고 그設立에積極的으로 活動中이라한다 (寫眞은 柳冀咲氏)

醫療界의權威 泉源藥房 章基浩氏



氏는 京城世富蘭偲醫專出身으로 屯浦寧公醫를歷任하고 數年前에 本郡溫陽面溫泉里로移住開業하엿스며 天性이 溫厚[illegible]하고 圓滿無缺하야 可謂斯界에 適任일뿐아니라 民衆의保健을爲하야 奉仕的精神下에 獻身的으로 天職을다하야 一般의稱頌이 藉藉하며 業績이 逐日繁昌하여간다 (寫眞은 章基浩氏)

숨은事業家 靈仁金組監事 李相薰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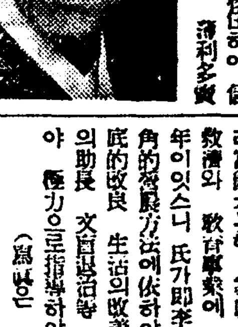


氏는現在靈仁金融組合監事로 牙山郡學校評議員等 公職을가지고 잇스며 素性이淸雅溫和하고 謙遜潔仁慈하야 細民의 便宜를 斡旋하야주며 公益慈善事業에 私財를 不吝하는 숨은事業家이다 (寫眞은 李相薰氏)

模範的事業家 牙山金組長 沈仁澤氏

氏는 今年 五十八歲의 老年으로 天性이 淳厚仁慈하며 現在 牙山金融組合長을 爲始하야 排芳公普校學務委員長期成會長、牙山郡會議員、牙山郡學校評議員等 公職을가지고 育英事業、公益事業、金融事業에 만흔努力을 하든中 그功績은 一一히 枚擧키어렵거니와 지금으로부터 三十年前인 明治四十一年에는 天安地方金組評議員 同四十二年에는 細橫私立進知學校長、大正二年에는 元溫陽郡東下面長等을歷任한 模範的事業家이다 (寫眞은 沈仁澤氏)

商業界의權威 信用商會 李漢祥氏



氏는 元來洪城出生으로 十餘年前에 本郡溫陽面邑內里로 赤手로來住하야 千辛萬苦로 三四年間奮鬪努力한끄테 氏의敏活한手腕으로 莫大한商業資金을調達하야가지고 溫泉里로移住하야 信昌商會를 經營하는中 薄利多賣主義로 一般顧客에게 懇切叮嚀히 信用本位로 酬應하고잇다 (寫眞은 李漢祥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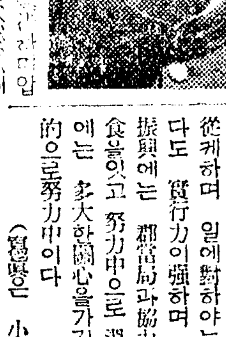
模範的靑年 吳榮善氏

氏는本郡新昌面 新達里에居住하며 農村振興의 必要를깨닷고 營農方法의改善 生活改善、自力更生 文盲退治等에 盡力하고잇는中이며 新昌公普校와 五木面簡易校 五木消防組에 氏의功勞가만흐며 新昌驛發展上에도 多大한 功勞를끼치고잇는 將來有爲의 模範的靑年이다 (寫眞은 吳榮善氏)

熟練한技術家 溫陽釀造場 金龜壽氏

氏는일즉이某中學을 優秀한成績으로卒業하고 本郡溫陽面邑內里에 釀造場을設置經營中 一般顧客에게 親切叮嚀하며 酒類品質에留意하야 多年間硏究한남어지 熟練한技術로 溫陽釀造業者로 販賣하야 一般의好評이 藉藉하다

智德兼備·天稟英敏 溫陽警察署長 小林重好氏



溫陽署長 小林重好氏는 元來智德이兼備하고도 天稟이英敏快活하야 [illegible] 公私에 見識이明白하야 於公於私에 判斷이迅速하고 人民에게 對해서나 部下職員에게 對해서나 威力的强壓으로 服從케함은 絶對로업고 오즉道德과人和로써 服從케하며 일에對하야는 實傳보다도 實行力이强하며 郡民更生振興에는 郡當局과協力하야 寢食을잇고 努力中으로 溫泉發展上에는 多大한關心을가지고 徹底的으로努力中이다 (寫眞은 小林署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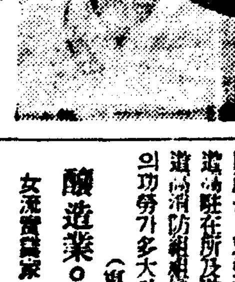
多角的營農家 李敏雄氏

本郡排芳面中里에 居住하며그리富裕치못한 家庭으로서 貧民救濟와 敎育事業에 努力하는篤年이잇스니 氏가即李敏雄氏다 多角的營農方法에依하야 農事의徹底的改良 生活의改善 美風良俗의助長 文盲退治等 同里를爲하야 極力으로指導하야간다 (寫眞은 李敏雄氏)

天主敎徒崇拜의的 宗敎家 姜斗永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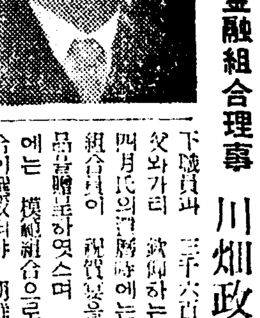
氏는 溫健淳朴한宗敎家로 四十餘年間 仁州面貢稅里天主敎會에 服師의職을띄우고 一般敎徒의模範이되야잇스며 仁州公普校의 功勞者로서 現在八十의高齡임에도 不拘하고 宗敎、敎育等事業에 努力中이다 (寫眞은 姜斗永氏)

誠實한事業家로 名望이노픈 林在和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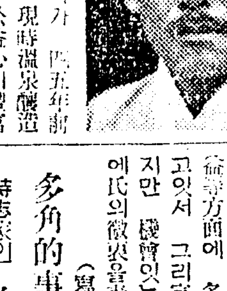
氏는일즉이 某專門學校를卒業하고 農村이 逐日疲弊하야감을 悲歎하고 氏의 鄕里인屯浦面市浦里에 도라와 農村振興 文盲退治 生活改善等에 畢死的努力을加하고잇스며 慈善 敎育 公益等各方面에 獻身的으로 活動하야 一般의欽慕의的이되여잇다 氏는 現在市浦里區長 同振興會長 牙山郡農會通常議員 靈仁金融組合評議員 屯浦面協議員等 公職을띄우고 公私에誠心誠意로 活動하는中年의紳士이다

金融界重鎭、模範紳士 牙山金融組合理事 川畑政次氏



氏는 鹿兒島縣出生으로 同縣師範學校를 優秀한成績으로卒業하고 日本內地小學校長을歷任後 明治四十五年에忠南扶餘公普校長을 爲始하야 江景公普校長、江景公立商業學校長等을 歷任하고 大正十一年同育界를辭한爾來 朝鮮地方民啓發에뜻을품고 同年保寧金融組合理事 昭和三年十一月牙山金融組合理事로敍任된後 主로農村의進展 地方經濟의圓滑、高利債의整理、自作農의創定、副業獎勵、婦人會의實地指導等 氏의精神과誠意에는 一般이敬慕하는바이며 天稟이溫厚寬大하야 每事에圓滿함으로 部下職員과 三千六百의組合員이慈父와가티 欽仰하는바이다 昨年四月氏의還曆時에는 職員과一般組合員이 祝賀宴을開하고 記念品을贈呈하엿스며 昭和十年九月에는 模範組合으로 牙山金融組合이選拔되야 朝鮮金融組合聯合會로부터 表彰을受하는同時에 功勞者로 氏가亦是 表彰을受하얏고 昭和十二年五月에는 同聯合會에서 功勞者로氏를 表彰하엿다한다 氏는今年六十二歲의老年임에도不拘하고 地方發展에獻身的으로努力中 現時에도 溫泉里繁榮會長의職을띄우고 本郡의首都溫泉里發展을爲하야 直接間接으로 크게活動中이다 (寫眞은 川畑理事)

外交的活動家 溫泉釀造場 柳錫胄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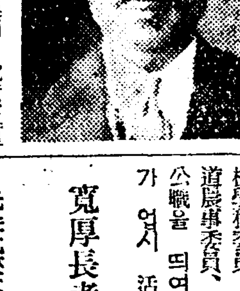


氏는 元來 本郡出生의 天稟이 活潑英邁한 外交的 手腕家로서 일즉이 仁川商業學校를優秀한成績으로卒業後 本郡森林保護에 多年間勤務하다가 四五年前에 此를勇退하고 現時溫泉釀造場을 經營中이며 公益心이豐富하야 地方發展과 敎育機關擴大에 奮鬪努力中 每事를快活히處理하고 將來가囑望되는 壯年紳士로서 氏의前途는 가장洋洋하다 (寫眞은 柳錫胄氏)

慈善博愛의神父 宗敎家 金性學氏

本郡仁州面 貢稅里 商事務所 東隣에 煉瓦製의 雅淡한 洋屋이有한바 이것이 牙山地方 天主敎會 最高幹部인 貢稅里天主敎堂이다 金性學氏는 神父의職으로 四十餘年間 敎會에 從事하야 慈愛博施로 一般의 信仰이두텁다 (寫眞은天主敎堂과金性學氏)

多角的事業家 仙掌金組長 徐廷昱氏



氏는 元來牙山郡出生으로 現今仙掌金融組合長 道高面協議員等의 公職을가지고잇는 中年人士이다 氏의 天稟이 沈默正直하야 平素에 虛浪한 言辭가업스며 每事를 必히三思한後에야 愼重히處理함으로 狼狽함이업고 本是貪慾치는안흐나 그리饒富치는 못하야 勤勉力行한남어지 至今은 四五萬圓의 財產을 모핫다 道高神社의新築 道高駐在所及道高面事務所의移轉 道高消防組組織等에 際하야 氏의 功勞가 多大하다 (寫眞은 徐廷昱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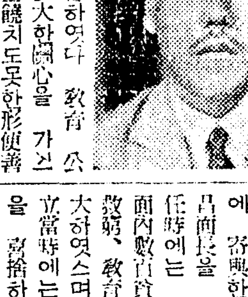
釀造業으로成家한 女流實業家 朱致國氏

女史는中年에 夫君을死別하고 貧寒한家庭을 挽回하고저 英毅奮鬪한끄테 仁州面貢稅里에 『日新』이라는 釀造場을 經營하야 지금은 巨財를모핫다 自己의過去貧寒을 回想하고 機會잇는대로 貧民救濟와 公益敎育事業에 獻身的으로 奉仕하야온다 (寫眞은朱致國女史)

靑年行政家 庶務主任 李鍾元氏

氏는 當年三十四歲의 靑年行政官으로서 일즉이 京都帝國大學을 優秀한 成績으로 卒業하고 天安郡屬을 歷任한後 昨年中에 本郡庶務主任으로 榮轉하엿다 氏는 頭腦가 明哲하고 手腕이 敏活하야 奉上御下에 一般의 範을 示하고잇다 (寫眞은 李鍾元氏)

勤儉貯蓄家 金麟濟氏



氏는 四十以內의靑年으로 天性이溫雅淳朴하야 勤儉貯蓄으로 溫泉의素封이되엿스며 天稟이 寬厚仁慈하야 公益、慈善에 寄與한바만타 十餘年前에新昌面長을 歷任하엿스며 面長在任時에는 多額의 私財를 던저 敎育、公益等에 功勞가多大하엿스며 其後五木簡易學校設立當時에는 一千二百圓의 巨額을 喜捨하야 本郡內簡易學校中 內容이 充實하고 斷然第一位를 占하고잇다하며 一般은 氏의公德을 稱頌한다 (寫眞은金麟濟氏)

多角的事業家로 特志家인 許均氏

氏는 四十七歲의 中年으로 일즉이 水原農林學校를 優秀한成績으로 第五回에 卒業하고 淸州公立農業學校에서 八年間敎鞭을 잡고 잇다가 農村이 날로 疲弊하야 감을 보고 此를 挽回하야 理想農村을 建設코저 慨然히 敎職을 辭하고 本郡排芳面에 도라와 몸소 밧갈고 김매는 一方 夜間을 利用하야 同里 無産兒童의 文盲을 退治키 爲하야 自己外舍에 講習所를 設置하고 育英事業에 從事하고 잇다 此外에 牙山金組監事、牙山郡學校評議員、溫陽公普校學務委員、排芳面協議員、忠南道農事委員、水越里共勵組合長等 公職을 띄여 可謂 寢食의 暇가 업시 活動하는 特志家이다 (寫眞은 許均氏)

寬厚長者로事業家 河範瑞氏

氏는元來本郡出生으로 天稟이 寬厚仁慈하며 少時로부터父敎를 承順하야 勤勉力行으로 孜孜히 農業에從來하야 五十以內의 牙山一流의財產家가되엿다 氏는特히公益心이 豐富하야 牙山公普校、仁州公普校、實業學校新築其他各方面에 氏의 貢獻이만흐며 小作人에게對하야 寬大하야 一般小作人들도 自己所有土地와가티 安心耕作하며 每年細窮民에게 食糧으로 救恤하는等 氏의篤志에는 一般이欽仰하는바이다 (寫眞은 河範瑞氏)

商業界의覇王 大聖商會 李漢珪氏

氏는本是禮山出生으로 貧寒한 境遇를 克服하고 遠大한抱負를품고 멀리『시베리아』에 건너가 春風秋雨二十餘星霜 가진苦楚와 온갓悲哀를맛보다가 八九年前에 本郡溫陽面溫泉里에 來住하야 大聖商會를 經營하는中 薄利多賣와 親切叮嚀主義로 一般顧客에게 信用本位로 酬應하며 待人接物에 溫恭謙遜하야 地方民의 讚聲이 藉藉하며 溫泉公普校의 學務委員으로 敎育事業에 奮鬪努力中 同校의 校舍增築과 同校學級增設의 急務를 느끼고 有志人士의 蹶起를期待하는中이다 (寫眞은李漢珪氏)

實踐躬行의模範家 在鹽釀造場長 李康福氏

氏는 現在排芳面協議員 牙山金融組合評議員等의 公職을가지고잇다 溫厚剛直한 人格者로서 幼少時에 家勢貧寒하나 向學熱이 旺盛하야 漢文을獨學勤勉하엿스며 二十以後에는 天安驛前에서 穀物商을 經營하고잇서 天安屈指의大商으로 一般의信望이 두터웟다 現今은排芳面長在里에서 在鹽面產業을 標榜하는 一方 農事를改良하야 本面唯一의 指導實踐의 農事家이다 氏는 今年四十四歲의 中年으로 [illegible] 努力中 氏의前途는 洋洋하다 (寫眞은 李康福氏)

人稟高潔·寬厚한 公益慈善家 金東九氏

本郡新昌面에 第一位로 屈指하는 德望家가 卽金東九氏이다 各方面의 功德事業에 만흔 功德이잇스며 新昌簡易學校를 設立함에도 氏의 功勞가 만타고한다 (寫眞은 金東九氏)

炎民들의恩人 慈善家 池錫範氏

本郡仁州面의 慈善家라면 池錫範氏를 꼽을것이다 天性이溫厚仁慈하야 年前旱災時에는 附近災民에게 莫大한 穀類로 救恤한바잇섯스며 其外에도 年年히 附近貧困한 住民에게 救恤하는바이다 (寫眞은 池錫範氏)

心身犧牲事業家인 金濟鉉氏

氏는 現時 仁州公普校學務委員 同校學級增設期成會長으로서 敎育事業에 獻身的活動中이며 同面消防組設立時에도 多大한金錢을寄附하는等 公益과 敎育事業에는 物質과心身을 아울러 犧牲하며 極力活動援助함으로 一般은 感歎함을 마지아닌다 (寫眞은金濟鉉氏)

運送業界의覇王 活動家 南鳳熙氏

氏는일즉이京城外國語學校를 優秀한成績으로 卒業한後 成歡地方金融組合監事(十有餘年) 陰峰面長(十七年間) 成歡勸業會社監事等을 歷任하고 現時靈仁金融組合監事로잇스며 溫陽溫泉서(◎運送店을經營하면서 大活躍中이다 氏가運送界에 投足한지 不過五六個月에 斯界에 雄飛를잡고잇는 實際活動家로서 氏는共益心이 豐富하야 本郡陰峰公普校設立時에 莫大한金品의喜捨가잇섯스며 本郡의首都溫泉里를繁榮促進케하는데 多大한 犧牲을不辭하고잇다 그中今春本道會議員選擧時에 同界

刀圭界의明星 溫陽醫院長 李聖禹氏

氏는京城世富蘭偲醫專出身으로 今年三十九歲의 靑年醫師이다 天性이剛明正直하고 快活圓滿하야 一般의信望이 두터우며 斯界에 雄名을날리며 遠近의 患者가 踏至하며 業蹟이날로 發展하야간다 (寫眞은 李聖禹氏)

印刷界의重鎭 李成珪氏

氏는일즉이 養正高普를 優秀한成績으로 卒業하고 本郡溫陽面溫泉里에 來住한以來 印刷業을 經營하야 本郡印刷界의 重鎭을 일우고잇다 또氏는 東亞日報牙山支局長의 要職을 띄우고 地方啓發에 努力하는 一方 公益思想이 豐富하야 斯界에 積極的活動을 하는中 現在溫泉公普校의學務委員으로 敎育事業에 努力中이다 (寫眞은 李成珪氏)

濟濟多士·各面長"푸로필"

◇溫陽面長 尹政善氏 氏는 일즉이 忠淸南道屬部 牙山郡屬을 歷任하고 面政을掌握한지十有餘年에 溫泉公普校의設立 面事務所의 移轉等 牙山의首都溫泉里發展上에 獻身的努力을하여 現今에는 忠南有數의都市를 形成하게햇스며 疲廢한農村振興에 全力을 傾注하고잇다

◇松岳面長 李用琦氏 氏는 松岳面長에 就任以來 女性啓發의 必要를切實히 느끼고 面內十四個里에 婦人會를組織해가지고 講演、講話會를 開催하는等 暗昧한 婦女子의啓發 生活의改善 田圃의共同耕作 色衣의撤廢獎勵에全力中이다

◇排芳面長 趙炳周氏 氏는 本郡農會에서 多年間農村指導에 從事하다가 此를辭任하고 本面長에就任하야 實地로 農村振興 生活改善等 面民을爲하야 獻身的努力을하고잇다

◇湯井面長 林圭明氏 氏는 本郡農會에서 多年間農村을指導하다가 此를辭하고 本面長에就任하야 農事改良、副業獎勵、生活改善等에 積極的指導와 湯井公普校의學級延長、湯井水防組의設立等 氏의熱誠과手腕에는 一般面民이 敬慕하는바이다

◇鹽峙面長 任斗鎬氏 氏는 本面에就任한以後로 面內貧民을爲하야 多年間 功勞가不少하며 同面에 公普校가無함을 기피慨歎하고 此施設을當局에 陳情한結果 그功勞로今日에鹽峙公普校가 建築하게됨은 實로氏의誠心誠意의 所致라하겟다

◇陰峰面長 金客珪氏 氏는 溫厚寬大하야 長者의風이잇다 氏가同面長에就任以來六七年에 公私間에 誠心誠意로 承順輔導하야 모든일에公無事私無하는 陰峰面이大治되여가지고잇다

◇屯浦面長 成弘基氏 氏는 天性이 機敏英敏하야 매양일에臨하여 快斷잇게處決하고 遲延함이無하며 部下職員과 一般面民이 仰慕하는바이다

◇仁州面長 曹龍煥氏 氏는 本面長에就任以來 總督府方針에 順應하야 面民을[illegible] 仁州에努力中이다

◇靈仁面長 朴東冕氏 氏는 本面長에 就任以後로 面民을愛撫하야 仁義로敎導하고 忠信으로接하야 一般에게範을示하고 農村啓發、生活改善等에 盡力中이다 公普校에도 氏의 功勞가 不少하다

◇新昌面長 姜琸熙氏 氏는 本郡農會에서 多年間農民指導에 服務하다가 昨年에 此를辭하고 本面에就任하야 農村振興、生活改善、文盲退治等에 徹底的指導와 熱熱한援助로 面民福利增進에努力中이다

◇道高面長 李萬鍾氏 氏는 일즉이 忠淸南道議員에 被選되야 本郡民을 爲하야 努力한바 不少하며 本面에就任한後 面事務所의移轉、農事改良、生活改善等 面所在地인 付掌驛의發展에 多大한功勞가잇스며 道公普校에도 氏의勞苦가莫大하다

◇仙掌面長 成炯元氏 氏는 元來本面會計로 多年間勤務하다가 昨年中에 同面長으로 榮任되얏來 面內行政과、事理에昭明하야 公私間에 圓滿無缺한面長이다

中部版

漢江에增水

【高陽】지리한 한발로 인하야 한강(漢江)상류의 물이 부족함을 기때문에 상선이 불통되여 한강 연안에잇는 주민들은 물론 로동자의 생활이 극도로 불안에 빠저다함은 기보하엿거니와 요지음강우량이 흡족하엿기 때문에 한강의 수량이 회복되여 지난구일부터 때만기다리고 잇든 상선이 통행되기시작하엿스므로 불안에 싸엿든일반의 우수는일소되엿다고한다

三百十五萬圓工費로 永登浦區劃整理工事

三區로分하야實地測量을進捗 假換地發表는十月頃에

【永登浦】작년사월경성부에편입되여영등포일대는 중요공업지구로서제일착으로 구획정리공사를실시케되여 금춘사월부터 삼개년 계속사업의 대계획하에 삼백십오만원의 막대한 공사비를 던지여 착수하엿는대그실시측량은 토지의 상황에 비처보아 당산정(堂山町)영등포정(永登浦町)신길정(新吉町)의일부 도림정(道林町)의일부를 제일구로 영등포정(永登浦町)、당산정(堂山町) 도림정(道林町)의 각일부급 양평정(楊坪町)을 제이구로 영등포정(永登浦町) 당산정(堂山町) 양평정의 각일부급 양화정을제삼구로 난우워 오는 팔월말일까지 종료한후 각계획간선의세부에공하야 고저지(高低地)의정리와 불정형토지(不整形土地)의 정리등 실시공사에 착수할수잇게를 정돈하고 시월초순부터약일천삼백사십호의 이전가환지처리(假換地處理)를 실행하기로되엿다 그런데 이이전보상금은 총공사비의일할에상당한 금액으로 약삼십여만원에 달하리라고본다 부(府當局)에서는 의로금을 상당히 지불할계획이라고 언명하는데 금후처리는 극히주목된다고한다

都市美化를爲主로 排水道路도新設

新興工都의體裁整備

【永登浦】도시의대개는 구태(舊態)의시가지를 시대의변천과 인구의팽창등에의하야 점차개선정리되는것으로 아모리리상적 설계를하엿다고하드라도 경비기타방해물로인하야 어느점인가 미련과불비가 남는것이 통례라고볼수잇는대 영등포만은 일부직공부락을 제하고는 거의전부가신개척지대이며 떨어서 작년경성부에편입하기전에 임이시가정리계획이 발표된바로 일반적으로 건축을중지하고 그실시를반기다리든터인만큼 문자그대로의 신흥도시를 현출할것이 확연한일인대 더구나매년제방내수(內水)의 배수(排水) 시설이 전무하기때문에 대단한 피해를 입든터에 본공사는 배수시설을 팔자로나준 지대의 류수를 서남쪽 안양천(安養川)제방 연안까지 끌게하고 암거(暗渠)개거(開渠)등으로 흘느는 내수를뽑푸로 배수하도록된계획이고 도로의 로폭가튼것도 이십칸미돌을 표준으로 이십오、십오、십이、십、팔、륙、사미돌등 각대소간선을 거미줄 느티도시 사통오달로 종횡난통케하고 여기에 상점가 공장가 주택지대등으로 구별하야 신건축물이 질비하게되여 일대신천지를 전개할것으로 삼개년후의 도시미관은 실로 괄목할것이라고한다

通信網不備로 江華住民不平

【江華】강화도내 강화、온수、교동(江華、溫水、喬桐)의세곳에 우편소가잇서 군내통신을전담코잇슴은 기보한사실이어니와 교동가튼곳은 전신전화는 물론업고 집배에잇서서도 일주일에한번식 집배하는데 이가튼곳은특별한사정이 잇다하더라도 강화본도내에 잇서서만은 윤활해야할통신이 불편의 불평까지 사고잇는 현상이다 집배인의 부족으로 위탁배달(委託配達)을하지안호면 때로는 그날중에오지못할사정은 일일여지도업고 이로인하야 우편물의 체연등을면이여간이아니다 물론 그러타고 분집물이 업슴은 사실이고전신전화에 잇서도 김포(金浦)각우편소와 공동으로 사용하기때문에 호출이 십분 이십분은 보통굿고 이로인하야 오후 열시가 넘어도 때로는 교환대기분잡을 일우는 사실이 잇다는바 강화 우편소로는 성의를 다하야 하다고 늘 언명하나 상급관청으로도 좀더 성의를 보이여 산업강화의 약진을 도와주어야할것이다 그러고 위선 시내구역에잇서 연속부절하는 남산리와국화리(南山里菊花里)간은 시내구역으로 편입함과동시에종래 일구이엇든것을 이구로 획장할것과 시외에도 집배인두사람은 시급한대로 늘려야하겟다하며 전선에잇서서는 강화직통선을 가설하야 시내외통신의유감이업도록할것과 집배인의 우대를 좀더하야 일의능률이잇도록하야주기를 십만대중은 기대하야 마지안는다고한다

仁川府北村에 汚物處置怠慢

【仁川】매년장마철을당하면 뜻하지아니한 병이성행할뿐아니라 잠재하야잇든 전염병이 잘동하기시작하야 인명의손상이 파다하야 경기도위생과에서는 각경찰에서는 하기위생에 각별한주의를하고잇는이때 인천부북촌 송림(松林)송현(松峴) 화평(花平)동지에 우물소제를 태만히하야 때는 장마철이라 우물이섞긴하수가 류동(流動)하야 주민들의 불결에대한 불안은 말할것도업거니와 이를방임한다는것은 못처럼 엄격히실시하고 잇는방역운동에 지장을일으키여 부민의 위생상 가장큰문제라하야 십만부민의 원성은 나날이 놉하가고잇다한다

撤去令바든五十三戶 住民大會를開催

交涉委員六名을選擧

【仁川】인천부송현정(仁川府松峴町)칠십이번지 일대오십삼호에대하야 그지주촌전부(村田孚)씨로부터 약진인천에잇서 도시미관을주로하야 위생시설이 완전한리상적 주택지를 만들겟스니 철거하라는 령장을 보내이엿다함은 기보한바와 갓거니와 그후지난구일 동정대화(大和)식당에서 오후팔시부터 주민대회를개최하고 그대책을 강구하얏다는대 주민의 의견은 이전하라 이전할곳도업고 사라하나살곳도업스니 우리의 최고전당(殿堂)주택지를 사수(死守)하자는 의견과 또는원매지를 모집하야 사도록하자는 의견과 위원을선거하야 지주와교섭을한후 그결과에의하야 대책을세우자는 세가지의견으로 갈론을박으로 장시간토의를 계속하든곳에 위원륙명을선거하야 지주에게교섭키로하고 동십일시경에 무사폐회하얏다한다

鄭文泰 許仁淳 李鎭元 金敬培 朴敬昌 李寶容

"다리"일흔水原市民 뻐스運轉手盟罷

花木主任의食言에憤慨

【水原】수원자동차주식회사(市內뻐스)에 종업하는 운전수십명은 지난이일 그회사화목주임(花木主任)에게 다음과가튼 요구를 하엿는데 그때에는 화목주임이로부터 전부청허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간리면으로는 타처에서 자동차 운전수를 모집하야다두고 팔일에는 일반 운전수에게 너의들이 향자에요구한 조건은 하나도 들어줄수업스니 너의들 생각대로하라 함으로 운전수일동은 화목주임의 식언하는것을 분개하야 팔일정오부터 일제히 동맹파업을 단행하엿다 운전수등의 요구조건은 (一)전에해직하엿던 운전수들을 복직을식여줄것(이것도 영구히채용하야 달나는것이아니고 타처에 취직할동안만) (二)운전수감독 일명과 사무원일을 회사식힐것(그중에 사무원은 말할때마다 선인(鮮人)이라하야 역감을 준다하다) (三)승무원과 상여금은 공평하게 해줄것 (四)해고할시에는 본인을 불러서 직접말을 하고중간에 사람으로 전치말것등으로사실운전수의요구는다른데서볼수업는물질을 떠난요구조건일뿐아니라 그행동등도 온건한 행동으로 오날까지 자동차를운전한것이 갸륵하다할것이다

水原邑防護團組織

【水原】지난팔일오후오시에 수원읍 공회당에서 수원읍방호단(水原邑防護團)발기총회를개최하고 의사를진행한바 수원읍구역을삼분단으로분하야 동부분단、중부분단 서부분단이라명칭을부치고오는이십오일 경전지점뒤광장에서 발단식을거행하기로되엿다 그런데 단장에는매원(梅原邑長)동부분단장에는차준달(車濬達)중부분단장에는 덕홍(德弘)서부분단장에는 식목(植木)씨가 임명되엿다한다

楊州防空活寫盛況

【楊州】지난구일밤 양주경찰서와 시둔면(柴芚面) 양주군(楊州郡)등의주최로 의정부 역전광장에서 방공선전(防空宣傳)활동사진대회를 열엇든바 수천군중이로대성황을 일웟섯다 야구서장(野口署長)의 비상시국에대한방공의중대성을 역설함에 일반관중은이에 도취되여 긴장미를띄엿섯스며 구월십일부터 삼일간의 방공대연습을 경성을중심으로한다는바 일반의방공사상이보급되니만치 비상한성적을 어드리라고예측된다

逃避中의釀酒業者 福溪에서遂被捉

脫稅額이約九萬圓

【平康】평강군남면정연리(亭淵里)에잇던 금강양주장(金剛釀酒場)은 옥정모(玉井某)가 경영하던바 금년정월에 철원세무관리에게 밀조한것이 문두검열에서 발각되어 탈세액이 구만원에달한바 이래이것을 알게된 경영자인 옥정(玉井)은 일본내지방면으로 종적을 감초고잇섯다 그는며칠전에 평강군복계에와 잇슴을 알게되여 모상점에 잇는것을 체포하엿다는데 지난륙일에 일반서류와 함께송국되엇다한다

開城府域擴張 隣近四個里編入

豫定대로德岩、龍興、古南、舘前里를너면 現在의約倍로躍進

【開城】근년에와서 인구 륙만을산하는 개성부는 부세가 급진적으로 평창발전함에 따러근대도시의 재건설을 목표로 부와 인접한 개풍군(開豐郡)근기일대의 사부를 부역으로 편입시킬계획이며 현재개성부 면적의 약배이상을 확대시킬 것으로 부당국은 방금 준비공작에 몰두하고잇다 자세한내용을 공개함은 아즉시기상조로 당국의 비밀에 부치는 일이나 구역확장의 결정된지역만을 탐문컨대 부외령남면 룡흥리(嶺南面龍興里)일부와 중서면 관전리(中西面舘前里)일부와 청교면 고남리(靑郊面古南里)일부외 전기청교면 덕암리(德岩里)만은 전부가 부역으로 편입될것이라한다 이외가티 전기사개리(四個里)를 부역으로 편입시키게 되는 백년대계의 개성도시계획상 가장기초적 지역으로주민의생활이 향상되내와긴밀한접촉이잇고가장 산업이 진흥되는지역으로 도시적 색채가 농후한때문이라한다 그런중 전기『고남리』와『덕암리』는 그지세가 평탄한 벌판으로 넓은개울을 끼고잇서 지하수가 항상풍부한때문에 장래 공장지대로 리용가치가 상당한 때문이라하며 又는 덕암리에는 방금 일만편(日滿連絡電話中繼所)전화 중계소까지 설치되여잇서 『도시』발전상 면목을 구비해잇스므로 전부부역으로 편입시키게 작정이라는데 이것은 직접도당국이 하는일이라 지금절정적으로 속단할수는업스나 금년구월경에는 부의회장을실시할것으로 추측된다

高壓線에感電 人夫一名卽死

【春川】경비전화(警備電話)가설중 잠간실수로 고압선에 감전되여 인부한명이 즉사한사실이 잇다 조사한바에 의하면본적을 춘천읍대성정(大成町)에둔 리하재(李夏宰)로그는춘천읍내 모철물상의 점원으로 이섯는데 약삼개월전에 통천(通川)경비전화 공사장에가서 일을하든바 지난륙일오전열시경 사십일번주(四十一番柱)와 사십이번주사이를가로 건너간 고압선우에로 전화선을 넘기다가감전이되여 즉사하엿는데 원래일도잘하고 충실한사람이엿다하며 지난칠일통천경찰서에서 장례를지내엿는데춘천(春川)잇는늙은부모와 어린처자는 『왜그리케 무서운곳에 돈을벌러갓섯느냐』하며 통곡하는양은 목불인견이엿스며 도경찰

散葬에서集葬에 共同墓地를美化

祖先崇拜의美德을保持하고 花草와樹木을植栽

묘지(墓地)문제는 사람이 사는곳에는 어느곳이고 중요한것이 어니와 특히조선숭배의 전통적미덕(美德)에 저저오는 조선에서는 한때 풍수설(風水說)의 미신적폐해가 큰바도잇섯스나 의연히 문제의중대성을 가지고온다 따라서 이묘지문제는 조선의 풍교(風敎)상에도 크나큰영향을 미치는것으로 이번경기도 위생과에서는 신설묘지의 집장(集葬)과 공동묘지(共同墓地)의 미화(美化)에대하야 충분연구협의한바잇서 각군부는물론 경성부군의 묘지를 경성부와협력하야 철저히 개량하고 미화하기로 되엿다

종래 묘지의 신설(新設)신청 또는 허가가잇슬때에는 묘지규측의 정신에따라 될수잇는대로 가족의 묘지가 여러군에 퍼저잇는것보다 한군대로 집장(集葬)하게하여오기는하엿스나 그실제에잇서서는 별로히 철저치못하엿슴으로 금후는 적극적으로 한군대에 집장하도록하야 더무여러군대에 묘지가 터를 잡지안토록 실행식힐터이라고 한다 그러고 공동묘지의 미화에대하야는 저번 각도경찰부장회의에에서도 지시된문제이니만치 각경찰에서도 그취지의 철저에노력하야 공동묘지의 위치선정을 적절하게하며 또는 그미화에가장 큰요소가되는 식수(植樹)를 만히할것과 구조에까지 관심하야 그미화개선을하야써 일반민중에게 숭경(崇敬)의 한관념을 환기토록 하기로되엿다

江原道內거리죽엄 一年에五六一名

行旅病者救護所는五個所로 施設의擴充이緊急

【春川】호화를 자랑하는 물질문명의 저주를 밧고 아픈다리를 질질끌며 정처업시 단이다가 운명의 악착스러운 작난으로 혹은로면(路邊)에서 혹은내까에서 혹은 숲사이에서 인생의 최후를 마추고 황천객(黃泉客)이 되는 인간(人間)들이 얼마나 되는가?

일년동안에 강원도(江原道)내 행려병사(行旅病死)자는 남자가 사백칠십삼인 녀자가 팔십팔인 합이오백륙십일인이 나되는데 행려병인 구호소(行旅病人救護所)는 춘천(春川) 고성(高城)강릉(江陵) 원주(原州) 철원(鐵原)오개소에 불과하며 그설비는 전연거론할배못되는터 물론 경비관계와 여러가지사정은잇겟지마는 인간의 생사기로에관한 시설이라 좀더고려할필요가잇이잇다고보며 일년간에 비참한 최후를마친 즉행려병사자(行旅病死者)수를 군별로보면 다음과 갓다고한다

春川二七名 襄陽一八名 麟蹄一八名 江陵六八名 楊口一四名 三陟三七名 淮陽三五名 蔚珍一五名 通川五一 於蘭一一名 高城五九名 平昌一八名 寧越一六名 平原二〇名 原州二九名 伊川一二名 橫城一六名 洪川二五名 華川八名 金化二一名 鐵原四四名 ▲計五六一名

平康警備電話竣工

九日부터全部開通

【平康】강원도내 경비전화시설(江原道內警備電話施設)에 대하야 기보한바도 잇거니와 평강서관내 팔개주재소(八個駐在所)에는 오늘부터 전부 개통되엿다한다 본서원의 열성노력한결과 강원도내에 평강서에서 제일착으로 준공되엿스며 기계에 사용공사 업시 완성되엿스므로 이로부터 경찰상 크게 도움이되리라고한다

甘屯水組當局에 導水路完成促進

百餘名地主等蹶起

【平康】륙백정보에 산천수민을 위호하고잇는 감둔도수로(甘屯導水路)사건에대하야는 기보한바어니와 아직까지 문제는제대로 진전되지못하고잇는바 지난칠일 오전열한시부터 평강군현내면공회당에서 감둔몽리구역내 지주회를개최하고 위원과 평의원을 개선하고 당일에모힌 일백삼십여명지주로부터 감둔수리조합당국에대하야 각자의물만과 제반사실을들어 당국의물미하다고생각하는요건을들어 발표로의한바 제요건을 결의하야 수조당국에 진정할것을 위원회에 일임하게되엇는데 개선된위원과 평의원은 다음과갓다고한다

委員 朴鴻熙 柳昌烈 石井 金作 朴道宗 金昌煥 柳政鶴 金啓海 金炳鶴 金顯奉 梁홈

評議員 全昌文 李道亨 金仁承 權五石 白丙麟 朴遇來 金應浩

地方人事

▲神谷小一氏(京畿道內務部長)赴任人事次本報春川支局來訪

▲川出兵右衛門氏(鐵原郡守)赴任人事次本報春川支局來訪

世界的大發明

專賣特許 中野式無水精麥機

本機의 出現으로 因하야 從來精麥界의 모든 不便과 困難은 解消되엿다 實로 本機는 晝夜降雨時 더욱이 夜間에도 作業은 一層할수잇는 前古未聞의 名機이다 本機一台만 備置하면 困難히 보이는 精米業界도 다시 活氣를띄워 事業은 一層隆盛된다

精麥界의大革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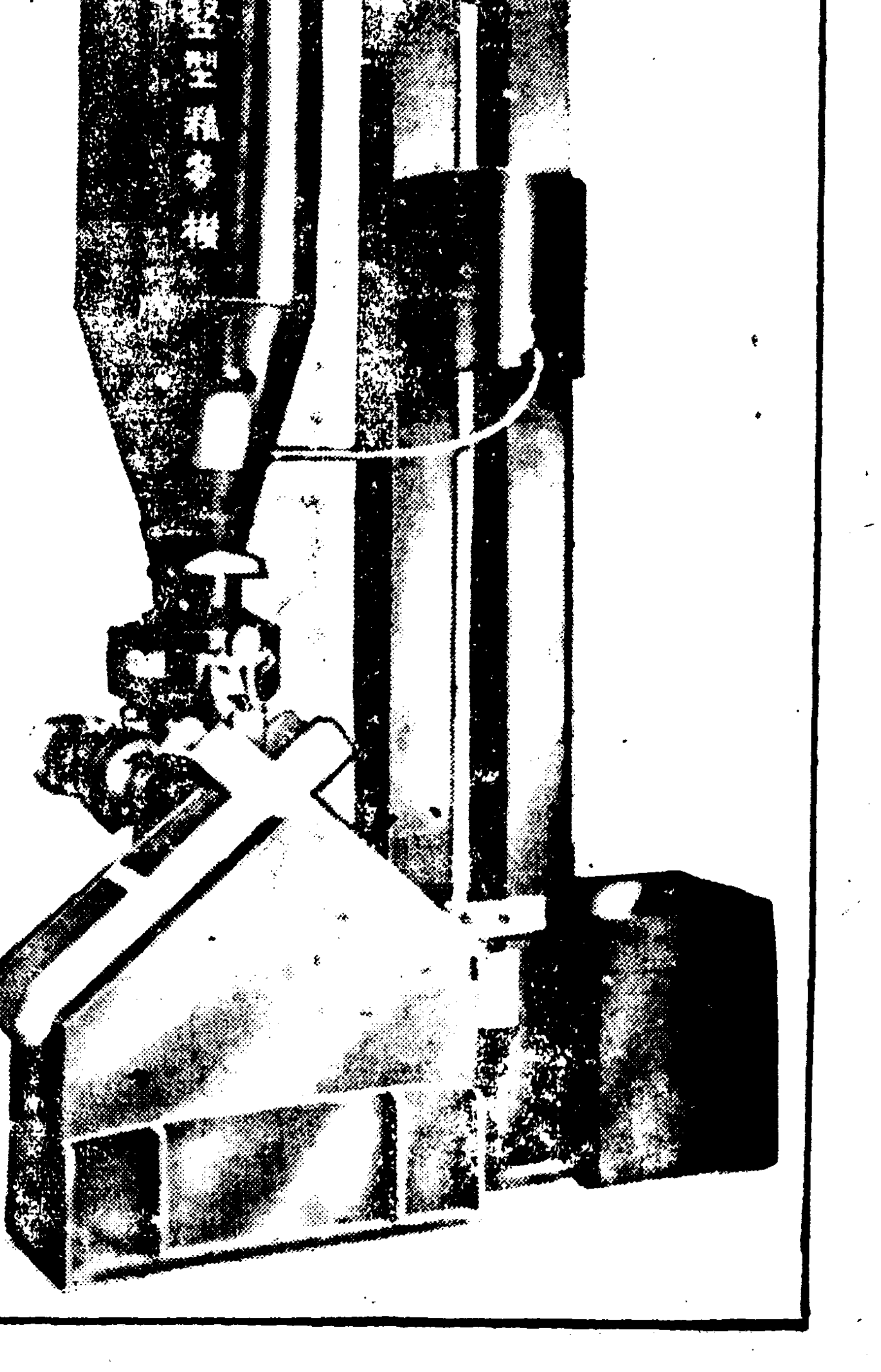
本機의特長

◎無混水임으로 …
◎麥及籾의乾燥不必要로降雨時나夜間에도作業可能
◎自動搗精으로能率多大人力節約不必要
◎衛生的이며炊事簡便
◎滋味는食用及飼料에適當
◎所要馬力僅少
◎碎麥皆無搗減僅少
◎色澤優美하야一見白米와同一
◎二重炊事不必要로燃料節約

◎絶對無混水 ◎絶對無混砂 ◎碎麥皆無

地方特約店募集

型錄及精麥見本請求次第進呈



專賣特許中野式無水精麥機
專賣特許中島式自働製粉機

朝鮮總販賣所

京城府鍾路五丁目二六二番地
電話光化門③一三一一番
振替口座京城二七二八一一番

조흔솔을選定하실때는 亀の子束子의商標와文字에御注意!

속기쉬운模造品이잇다

東京 西尾商店

軍手의製造

◎年中無休……收入確實◎

○收入確實하고確實한需要를가진軍手編物의製造를勸합니다。
○이일이야말로晝夜晴雨에不關코年中活動할수잇습니다。
○弊所의發明機는操作이單純하야素人에게도그날부터收入을볼수잇소
○弊所는軍手의製造를家庭의餘剩勞力을活用하는副業으로普及하고軍手編絲의普及、製品의引受等相互連絡을取하야共存共榮의實을擧키爲하야目下各地에製造家를求하는中이요。
○就業希望의분은左記弊所에照會次第說明書無料送呈합니다

京城府黃金町五丁目
軍手編機輸出問屋 朝日軍手京城支店
電話本局⑥〇七一・振替京城一四二八〇番

五日より七日まで 午後一時より開映
料金 大人五十錢 學生小人三十錢 小學生二十錢
日活多摩川現代劇 伊澤一郎、一躍第一線スターへ躍進 ちゃん重役
日活京都時代劇 黑川彌太郎、花井蘭子主演 森の石松
尾上菊太郎一行の舞踊は 五、六、七、三日間晝二時半 夜八時の二回 毎日晝間先着百名様に張り菊太郎ガ三階ホールでブロマイドにサインして差上げます
全鮮第一封切 黃金座

十一日부터十三日까지 三日間晝三回
料金 大人 小人
●廿世紀폭스超特作 림쫄의愛國者
●獨아리안스特作東和商事提供
●新興키네마特作品 몬푸랑의王者
寺子屋
●大朝世界뉴-스 讀賣發聲뉴-스
團成社

奏効如神

雞冠蚊香

雞冠蚊香의絶大한信用은 實로그効力에잇슴니다

모기향을사실때에는 불이오래타고효력이 제일조흔『계관모기향』이라고차저주십시오

大阪 三十六州

大日本除虫菊株式會社

經濟朝鮮說

產米增殖計畫 復活說을듯고

李健赫

昨紙所報와가티 總督府農林局米穀課에서는 產米增殖計畫을 復活코저 目下立案中이라한다

아직 立案中임으로 어떠한內容으로될지는 모르나 十三年度부터 實現하리라하니 注目지아니할수없는일이다.

이제 어째서 中絕되엇던 產米增殖計畫을 復活코저 하는지 또는 이것이 復活된後 朝鮮米의 바들影響이 어떠할가를 살펴보기로하자。

이번에 產米增殖을 復活하는 原因은 經濟五個年計畫에 伴한것이라는데 이經濟五個年計畫이라는것은 朝鮮서만의 單獨計畫이아니오 日本內地 朝鮮 滿洲의三地를 通한大計畫인것이다。

지금의 財政經濟는 準戰體制下에 非常時色을띄어가지고 實施되는 中으로서 所謂經濟五個年計畫이라는것은 現所充實을가리친것이다。

經濟五個年計畫에 對應하야 生產力擴充과 物價의 調整論議에 關하야 根本方針을 檢討하자는것이 中心經濟會議의 目的으로서 五個年百十億圓이란 大國防費負擔과 消化를 目標로 日本經濟의 計畫的大擴張의 企畫이 그課題인것이다。

이리하야 南總督도 過般渡東하야 財經三原則具現化에 朝鮮도 協力키로 意見이 一致되엇는데 新相은 總督에對하야 「三原則實施에 當하야서는 適地適產主義의 產業政策을 取하여야겟고 그것이 實施에 當하야서는 內外地를 通한 產業統制 調整이 必要하며 勃興期에잇는 朝鮮產業도 이「國策」經濟形成을 爲하야 適切한 統制按排를 하라」면서 生產力擴充의 線에 添하라」고 말한것을 보드래도 今後의 諸政策이 어떠할것을 대강짐작되는터이다。

×

얼는 생각하면 生產力擴充과 產米增殖과는 緣이먼것갓기도하나 經濟五個年計畫에 伴한 產米增殖은 當然한것이라고도 할수잇는것으로 計畫의 大小와 實施의 程度는 何如間에 產米增殖이 새計畫下에 實施되리라는것만은 틀림업는듯하다。

그러면 產米增殖은 今日까지 어떠햇는가? 이에 對하야서는 本欄今年新年號에 筆者가 詳述한바잇스므로 그經過 및 中絕된 자세한것은 再說을 避하고 아프로 이計畫이 復活됨에따러 어떠한 影響이잇슬가에 對하야 一言코저한다。

×

지금에잇서서 朝鮮米問題는 無限擴張한다할수잇스나 二、三年前까지도 朝鮮米의 移出制限、優待가 內外地米穀政策의 큰 問題로 되어 朝鮮側의 怨聲이 컷섯고 朝鮮總督府와 農林省과의 對立까지 甚하엿섯다。 웨그러하냐하면 朝鮮米가 日本內地의 需要以上으로 殺到하야 日本內地米價를 低落시킨다는데 그原因이 잇섯든것이다 그러든것이 最近에와서 數年間 或은 日本內地 或은 朝鮮米의 凶作과 米價昂騰으로 朝鮮米는 絕對必要가업게되고 따러서 虐待소리도 업게되어 朝鮮米問題는 自然解消케되엇던것인데 이번에 產米增殖計畫復活을傳케되어 다시朝鮮米前途를 생각해보게된것이다。

今年產米라도 日本內地가 豐作으로서 朝鮮米移入을 그리要치안는데 朝鮮米가 豐作이라면 비록 自治管理法發動에 依하야 過剩米를 强制貯藏케된다드래도 朝鮮米問題가 管理比率其他諸問題로 또朝鮮米問題가 發端하야 不平이 업지안을것이니 지금가 內外地官民의 放心을 不許케될것은 想像키어렵지안타。

이제 產米增殖復活로 增收를 생각할때 먼저머리에 떠오르는것은 所謂『朝鮮米問題』로서 差別、虐待소리가 또다시 거듭되지안을가하는 念慮인것이다。 米에對해서잇서 內外地米政策의 障害로 因한 產米部門全體에잇서 問題되는이때에잇서서 朝鮮米增殖은 이어이기를 바랄수잇을가?

產米增殖計畫復活을듯고 計畫立案과 同時에 所謂「朝鮮米問題」再燃이 업도록 當局充分히 考慮에너어주기를 切에부탁하고 今後의 進行을 보기로한다。

濟州島開發의 再檢討論擡頭

專門的部門實驗後가아니면 全面的開發은疑問

過般 濟州島의 全面的開發에 對하야 總督府의 方針이 決定發表되엇는바 이에對하야 最近識者間에는 漸次 그再檢討의 必要論이 擡頭되고잇다

即 理由로하는바는 濟州島는 全面積十八萬九千九百七十町步인데 그中海拔一千尺以下의것은 十三萬九千五百五十町步이고 二千尺乃至一千尺의것이 三萬一千一百町步이며 그以上의것이 一萬五千五百五十町步이다 이一千尺以下의것이라하야도 그全部가 耕地로되리라고는 생각할수업고 그中約四割의 五萬六千町步를

耕地 可能面積으로볼수잇는데 濟州島의 人口約二十萬人이 全朝鮮一人當平均耕作地○、二三町步로잡고 그旣墾地를 이에서 控除하면 今後開墾할 面積은 不過一萬二千町步內外에 不過하다 그런데 여기에다 濟州島에 多大한期待를갓고잇는 燃料無水『알콜』의 原料인 甘蔗를 栽培한다고하면 全南平均段當二百六十貫의 收量이 잇다고보고 三千百二十萬貫의 收穫을 어들수잇서서 이를貫當十錢으로 換算하면 三百萬圓內外의 所得이잇슬것인데 이

巨大 한 費用을드려 六七萬人의 勞力을動員할 價値가 果然잇슬가 또는『알콜』原料로 使用하는 甘蔗의單價는 約四錢이라야 採算이맛는데 이러한形便에잇서서 甘蔗栽培를 獎勵하고 無水『알콜』製造를 促成하려면 이에 巨大한 補助가 必要할것이다

그뿐안이라 濟州島는 岩石의 時代가 年若하야 活火山이 잇든지가 四百年을 經하얏슴에 不過하야

植物 生育에 適當한 土壤의 發達이 不充足하고 또 石塊가만허 耕作에 適當한 土地가 僅少하야 이를 開發한다하야도 그利用價値에 크게 期待를 갓기어렵다

그리고 工業的方面을 觀察하면 第一에

用水 가 問題인데 濟州島는 飮料水에도 困難을 맛고잇는形便으로 火口湖의 溜水를 利用하는수밧게 업는바 저有名한 白鹿潭을 드러말할지라도 集水面積 蒸發量 降雨量을 모다 考慮에 너어 計算하야 年五萬噸의 用水를 어들수잇슴에 不過하다 이러한것이 몃개가잇다하야도 飮料水에 不過하고 工業用水를 엇기는 至難하리이다 또 動力에잇서서도

發電 에 올보면 八키로와트로 그可能 水落差를 六千尺으로치고 白鹿潭水를 이용하드라도 不過하야 이러한것이 서넛이잇다고 잡드라도 그發電力은 二、三十키로와트의 貧弱狀이다 그리고 燃料石炭으로 말할지라도 九州炭을 使用할수밧게 업슬터인데 그船運賃을 考慮치안흘수업을것이다。

大體 이러한關係로 開發可能面積이 相當하고

氣候 가 好適하다할지라도 個別的專門的部門에 잇서서 實驗을 하야보아 結果有望하다면모르되 全面的으로 開發한다는데잇서서는 再檢討할必要가 잇지안흔가 하는것이라한다

朝鮮重工業創總

朝鮮重工業株式會社(資本金三百萬圓二分一拂込)는 創立準備中이든바 十日午前十時 釜山鐵道會館에서 創立總會를 開催하얏는데 重役問題로 相當히 紛糾될모양이라한다

爲替平衡資金

五億圓設定을考慮中

對英一志二片維持를 目標로 하는 爲替政策은 金現送과 共히 今回爲替管理强化에 依하야 圓貨擁護의 策을 取하얏는데 輸入爲替에 關한 管理令은 從來도 貿易業者의 商權을 逸케하는 境遇가 不少하얏슴으로 大藏省에서는 이것을 補正하고 貿易促進을 圖함에 一時的爲替低落에 備키爲하야 輸入爲替取得의 限度擴張을 하는同時에 새로이 爲替平衡資金을 五億圓가량 設定코저 考慮中이라한다

年額豫測範圍 輸入許可

國際收支適合方策

【東京電話同盟】政府의 財政經濟政策의 基調인 三原則中 國際收支의 適合에 關한 具體的方策樹立에 關하야는 大藏省에서 連日檢討를 加하는一方 重要品輸入業者를 個別的으로 本省으로 招致하야 當該品의 一個年間의 輸入豫測其他에 對하야 事情을 聽取하고 今後의 國際收支均衡의 萬全을 期하려고 하고잇다 即

大藏省에서는 過日紡績聯合會代表者와의 間에 今後의 棉花輸入年額에 對하야 營業者의 意向을 聽取하고 다음 人絹聯合會代表者로부터도 亦是 펄프輸入狀況에 對하야 將來의 豫測을 聽取한後 紡績聯合會內部의 輸入競爭을 될수잇는대로 自省하야 投機買付에 依하지 안토록 數字를 提出하라고 要求하고 그範圍內에서 輸入爲替의 許可를 行할方針이라함을 明白히하엿다

그런데 當局에서는 輸入爲替取得이 過般의 爲替管理强化에 依하야 顯著히 困難하게되엿기 때문에 輸入業者로하여금 各商權을 逸케한다는 輿論에 鑑하고저 原則으로서 各品別로 年輸入額을 査定하야 그範圍內에 限하야 輸入爲替의 許可를 自由로 行하게할가 右範圍內라하더라도 短期日에 輸入爲替가 殺到하는 境遇에는 爲替維持의 立場으로부터 適宜許可를 遲延케할方針인데 如斯한 見地로부터 單純히 許可制度뿐만아니라 爲替平衡資金制度新設에 依하야 一時的輸入殺到에 對한 爲替低落을 適當히 調整할必要가 잇다고하야 이에 最近當局에 投機輸入防止뿐만아니라 積極的으로 各重要商品의 輸入을 調整하야서 國際收支適合의 具體化를 圖하고 잇는것은 注目할바이다

朝鮮內人絹業 生產配定協定

十日同業組合總會에서

朝鮮人絹織物染色同業組合에서는 十日午後二時 共益社빌딩에서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總督府로부터 石井技師外關係官이 出席하야 日本內地染工聯에對한 朝鮮同業組合의 對策에 就하야 協議하얏는데 最近의 日本內地人絹工場의 朝鮮進出은 咸南(咸興)의 太陽레온을 비롯하야 慶南(勿禁)의 東洋레온工場進出計畫等이 續出하는情勢이며 朝鮮人絹同業組合自體의 生產統制論이 擡頭키에至하얏슴으로 먼저 業者間의 協定에 基하야 今秋의 生產配定을 決定하기로 되엇는데 現在新工場에對한 配定拒絶의 法的根據가 업슴으로 이에對하야 如何한 態度에 出할지 注目된다한다

米中銀協定强化

共同聲明內容

【華府九日發同盟】國民政府財政部長孔祥熙氏는 去二十一日米國에 到着한以來 連日米國政府財界有力者와 會見하고 米中經濟提携勸說에 大活動을 繼續하고잇는바 九日모겐도財務長官과의 共同聲明으로 今回米中兩國政府間에 現行米中銀協定을 强化擴充하는 新協定이 成立되엇다는旨를 發表하엿는데 共同聲明要旨는

「兩國政府는 米中通貨關係의 安定시키기爲하야 또는 中國中央銀行의 金準備를 充實시키기爲하야 다음諸項에 對하야 意見이 一致되엇다

一、國民政府는 米國政府로부터 相當額의 金을 購入할것

一、이에對하야 米國政府는 一九三六年五月의 米中銀協定에 基하야 이미購入한것外에 다시國民政府로부터 銀을 購入할것」

米中兩國이 相方購入할 金及銀의 數量에 對하야는 아무明瞭한 數字는 發表되지안햇스나 孔祥熙氏는『米國으로부터 購入한 金은 在外正貨로서 米國에 預金하여둘터이다』라고 述하고 또 모겐도財務長官은『國民政府에 貿抑하는 金은 財務省의 不活動金勘定으로부터 融通할터이다』라고 말하엿다

上旬入超

四千二百萬圓

【東京電話同盟】大藏省發表=七月上旬對外貿易은 入超四千二百七十五萬六千圓으로서 一月以來의 入超累計는 六億八千二百七十一萬一千圓이엇다。

○七月上旬貿易(單位千圓)

輸出	八三、九七九
輸入	一二六、七三五
合計	二一〇、七一四
入超	四二、七五六
一月以降入超	六八二、七一一

鮮銀券收縮

年初以來低記錄

鮮銀券의 發行高는 上期末의 七月에 入한以來 收縮되어 上旬末에는 一億五千萬圓臺이엇스나 七月에는 一億四千萬圓으로 顯著한 減退이엇다 年初以來의 動向을보면 一月中에도 一億八千萬圓에서 一億九千萬臺、二月에는 一億七千萬臺 三、四도 繼續하야 六千萬圓에서 七千萬臺이엇고 五六月은 漸減되어 一億五千萬臺平均이던것이 七月에 入하야 一億五千萬臺割이것으로 七月九日 繰越의 一億四千百五十一萬圓은 年初以來의 最低記錄이라한다

寸鐵

○鮮銀券은 年初以來 最低記錄으로 大收縮 돈이 貴해젓나?

○『이불리』세상이니 夏枯의 一時的現象이라 해두

○鐘紡工場은 生金巾에 着手코 新販路開拓、人絹工場은 生產量配定할程度로 興旺

○누가하는것이던지 朝鮮의產業도 躍進되는모양

○濟州島開發에는 科學的으로 再檢討論擡頭 勿論愼重히 計畫을 樹立하겟지만은 注目거리

(七月七日) 雜貨商 京城府仁寺町五〇 合資會社三光代表社員 印在信

◆京城府瑞麟町三四 仁和鑛油商會 曹仁奉

今日의市勢【十日】

株式 買氣再燃 好轉

前場好轉 昨後場翻望裡에 釘着이든株式은 北中危機의 完全解消를 好感코 物色買氣再燃한것이 外電의 堅强報와 東洋紡의 增資說을 되살며 東洋紡三圓七高인 二百十五圓示現으로 反地는 鐘新東新이 모다 寄付부터 奔騰하얏스므로 東新七高 鐘新一圓五高、大新、日產各四高로 穩健裡에 寄付한後 鐘新은 二百九十四圓을 回復하고 東新도 百五十七圓臺로 올려 好轉裡에 今週를 마치고 後場은 例休이엇다

海外高를注目

東洋紡增資說을 되살며 다시 再燃하야 對方의 待望인 押目平和株의 一角으로부터 買氣는

鐘紡工場

生金巾에着手

鐘紡商船의 海外進出은 繼續的 新販路를 開拓하엿는데 今年도 上半期에 三近活況으로 鐘紡永登浦工場에서 新販路開拓을 目標로 從來棉布에만 充하든 生金巾에 着手하야 四月二百九百鍾을 冬物用으로 四月二百鍾 五月二百鍾 六月百鍾의 五百鍾을 生金巾에 充當하고 잇는데 同製品은 一旦 日本內地에 移出하야 押染加工을 加하고 輸出品으로 할것으로 本年度 이미 三百七十二萬九千六百九十九方碼 三千四萬二千四百二十碼의 生金巾을 輸出品으로서 同工場에서 移出을 行하얏다 將來世界的進出은 注目된다한다

米國小麥豫想

【華府九日發同盟通】米國農務省의 發表에 依한 七月一日現在의 小麥收穫豫想은 如左하다

▲冬小麥

作付反別	四七〇七九千英町
作柄	七一%
收穫豫想	六六三六四一千뿌셀

▲春小麥

作付反別	二一、一一九千英町
作柄	七七、五%
收穫豫想	二一八、六四六千뿌셀

農家의所持는 二千百八十八萬四千뿌셀이라한다

今日財界 十日

◆米(單位石)

仁川期米先限	三〇、三〇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三三、七〇	[illegible]
京城一等白米百키로	三三、〇〇	不變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一斤價三等	[illegible]	[illegible]
古平神戶現	[illegible]	[illegible]

◆株(單位十錢)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商品(先限單位)

綿絲	[illegible]	[illegible]
人絹	[illegible]	[illegible]
棉花	[illegible]	[illegible]
砂糖	[illegible]	[illegible]

鐘新의今後觀

다시 押目買에 好調裡에 보엿든데 北中危機解消로 다시 再燃한것이다 米國市場의 株式界는 勿論이나 一齊好轉되고 잇슴으로 生絲高는 勿論 三品도 米棉이 어니와 一時는 暴騰을 불렸다 다시 三品高를 誘致하고 三品高가 他商品에 飛火하야 商品高로 다시 市場逼迫되엇슬이 不過한면지도 亦未知이다。如斯한 米國市場의 活況은 今後크게 注目할必要가 잇슬가한다。

强氣側은 鐘新三百八十圓說을 主張하는者도 업는바아니나 設或잇다고하드라도 아직 遙遠한 將來의일이오 目前으로는 東洋紡이 一億五千萬圓으로 增資된다면 九月最終込後增資는 必至일것으로 買進될것은 勿論이나 增資目標로 買進되면 七圓押은 頑强하다하야 近四十圓高에 反의上伸力을 減殺할憂慮도잇서 目前으로는 去般高價 二百九十四圓五(東京)를 上翻하면 三百圓示現은 거의確實할것이나 三百二十圓臺關門을 뚫치고 上拔키는 至極할것이므로 附近에서 다시反落되지안을가보는편도잇다。東新은 依然擬定目標價六十一、二圓臺示現後 底調가될것으로 市場人氣는 보고잇는모양이다

紡績株强調

東洋紡이 一擧六圓高로 二百十七圓을 唱하게되고 鐘新도 追隨高가되매 日本紡新도 五十八圓五로 一圓五高를 보엿스며 其他紡績人絹株는 暴騰約一圓高를 告하엿고 帝國人絹、神戶製鋼等은 四五十錢反彈으로 一息인데 日滿아르미는 八九○으로 一圓高 同新六四、五로 一圓五高의 鼎騰을 보엿다

大阪短期最終氣配

大新	九三七〇	一〇錢高
鐘新	一九四二〇	二〇錢高
日產	〇一七〇	一〇錢高
東新	一五七五〇	一〇錢高

實物前場取引

▲帝人絹(三〇)▲日滿아르미(一九)▲帝火(三)▲神戶製鋼新(六)▲帝麻新(四、五)▲日本紡新(六)

市場六感

(株)…國際危機를 俘하면 軍需株가 鼎騰하고 危機가 解消되면 平和株가 擡頭▲이리하야 買氣는 循環的으로 一往一來▲어떤景氣論者는 今年크리스마스로써 景氣의 絕頂으로 본다고하니▲그러면 世界經濟의 反動은 不遠에올까?▲勿論 株式商品을 勿論하고 再考步調로 秋高가된다면 年末年初의 下落을 보일는지도 亦未知▲그러나 景氣는 이三四年은 繼續할것은 證明하는터이나▲如何튼 大天井을 칠때까지?▲如何튼 急反動은 警戒로서 押目買一貫이 올치안흘는지?(金剛城)

(米)…問題의 中先開設은 七十餘丁으로 擴大된後부터는 更히 低積되지도 못하고 現象을 維持할뿐◆엇하면 中先은 正米의 高價의 現象만을 維持할수잇고 先限은 境遇에 依하야 新米氣分의 反落을 示할수도 잇스으로 結局은 此以上의 擴開를 見할지도 亦未知◆市勢에는 材料가 必要하나 昨今으로 보아서는 取組關係도 얼마나 큰것임을 可知로는 七月一日殘存米의 發表如何도 한市勢잇슬가?(華山)

國債堅調 動意含의

【東京電話同盟】北平事件一段落으로 意外日本國債는 一齊高發想이며 一方 債券期限償債等도 잇서 徐徐히 動意含인 氣勢에 잇서서 內國債는 甲四分五釐安이나 第三回四分은 五錢高이며 外債도 佛貨는 十錢高이오 米貨도 六分半五分半共히 五十錢高를 示하엿다

▲甲五分利	一〇一五五
▲三回四分利	一〇二〇〇
▲佛貨	一九六一六

期米 株高好感 前場暴騰

今朝는 强大으로 阪地先限三十三圓五十七錢인 六丁反高를 押하고 當은 資不成中인 山東店의 買進으로 一圓九十四錢인 五丁高로 先限은 各店의 買販이 意外現出하야 三十一圓二十一錢이 僅히 三丁高로 場을 示한後 阪地二十四錢으로 小强하엿다가 八節六十錢으로 反高함을 作하야 八節二十九錢으로 結局 取止七十七錢을 보고 五十錢에 止場하다

株式高의支援

當地先限은 阪地三十三圓二十錢高의 反落과 共히 三十一圓三割의 九十七錢을 一時한後 다시 一圓臺를 恢復하더니 今前場에는 株式高好感으로 飛然反撥하야 限은 二圓六十四錢으로 中限三十二圓五十錢을 보엇다 日本內地及朝鮮의 好順은 既히 行動을 一巡한後인만치 別影響이 업슬것갓고 此의 反映으로 天災가 잇는때는 敏感한 物情을 보이고잇다

大幅瓦落不許?

二千八百二十萬石前後의 數字를 보게된다 그러므로 이以上의 數字를 보이면 强氣的이오 이以下가 되면 弱氣的인데 如何튼 新米價는 一段落程度가 까지는 容易히 低落치안을것같다 果如何?

最近頃上의 天候는 日本內地及朝鮮을 不問하고 無類의 好順을 繼續하야 作柄은 否定할수업슴 悲觀을 말하나 그러나 市勢는 例年과如히 散發的行動을 하지못하고 그低落의 步調가 遲延하야 어떠한 新材料라도 잇스면 반드시 一反撥을 作할만한 形勢를 示하야 天災待望으로의 未收行의 奇現象을 보이고잇다 그러면서 朝鮮은 昨年의 凶作으로 在米가 極度로 涸渴하야 正米의 實勢가 容易히 低落을 許하지안코 日本內地는 昨年의 凶作後로서 二年前의 新米豐年이엇스나 二年前의 凶作의 食이 過多하엿든 關係上 今年端境期의 需給不安이 업지안흘 모양으로 또한 正米의 市勢가 高價를 維持하지 안코 잇슨즉 新米缺의 限月이 아니고는 本格的瓦落을 許하지못할모양이다 現先限은 新米의 氣分이 업지아니하다하야 消費成을 하는편이 多하고 딸아서 中先의 鞘가 七十餘丁에까지 擴大되엇스나 그러나 此도 一時的現象으로 어느時期까지는 大幅崩下는 업슬것이 아닌가하는 商談도잇다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 ◇買方 ◇賣方 / 中限 / 先限 [illegible]

正米 續伸 淸算高로

京城續高 在米薄이엇으로 正期는 一齊히 强調를 品質과 相似하야 取引은 거의 보이지안코 十錢高를 作하엿다 一等白米三三、五〇 四等三一、四〇 二等三二、七〇

仁川昂騰 無材料인때에 今朝期米의 昂騰으로 市況은 活況을 呈하야 移出側의 買氣가 在外 實需側買로 市價十錢昂騰이엇다 一等白米三三、二〇 四等三二、六〇 銀坊主三等三二、七〇 四等三二、〇〇 多賀錦三等三三、一〇 四等三二、一〇

釜山續硬 昨來의 定期强調로 依然與地高는 强硬하며 一方精米側도 低價期待가 어겨 小口이나마 買出하게되어 市況은 强調 一等白米三三、二五

大邱保合 期米昂騰步調로 所持側은 强硬한 買方一般은 形勢觀望으로 나서지안이 一等白米三三、三七

群山續伸 頃來의 買付物商談은 停頓되엇다 一等白米三三、五〇

木浦堅調 依然의 現品薄 [illegible]

海外經濟 九日

[illegible]

銀行券 九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阪神鰯油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金銀價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illegible]

正租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本絹交織人絹

◆京城絹布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短期主要取組高 ◆算定代引日步 ◆東京短期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現株 ◆大阪短期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釜山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綿絲 · 棉花 · 人絹 · 生糸 · 砂糖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砂糖 ◆東京砂糖 [illegible]

株式 期米 玉 柳來恒取引店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金白 銀金 杉山商會 京城明治町

期米 康益夏 仁川

買賣金銀 合名會社 平壤金銀商會 平壤府本町一四六 電話二〇二五番

金銀 石土白金 賣買分析 金銀賣買會社 京城府南大門通一ノ九五 電話本局一三八〇番 振替京城一三四八〇番